

↑ 코스피 2482.29 (+10.34)	↓ 코스닥 682.91 (-3.21)
↓ 금리 (국고채 3년) 2.873 (-0.016)	↑ 환율 (한·달러) 1394.10 (+3.20) (20일)



Economy

하나금융그룹

韓 증시, MSCI 수익률 최저 수준... ‘바이코리아’ 확산

전세계 MSCI 지수 수익률 17.6%
한국은 연초 대비 수익률 -12.8%

외국인 자금 약 17조 증시 이탈
트럼프 정책, 수출기업 부담 가중
서학개미, 미국 주식 선호 증가
밸류업 정책·삼성 반등이 관건

올해 전세계 MSCI지수 수익률 평균이 17.6%인 것에 비해 국내 증시는 -12.8%를 기록하며 극단적 부진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Bye Korea; 탈 국내증시)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선호는 증가하면서 한국 증시 소외 현상이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 15조원을 순매도했다. 이달에도 순매도 흐름이 지속되면서 19일까지 약 2조원 가량을 털었다. 코스피는 ‘검은 월요일’의 타격을 점차 회복하는 듯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다시 급락세를 보이며 2500선 밑으로 또 한 번 떨어졌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됐던 7일부터 19일까지는 약 3.57% 주저앉았다.

LS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한국의 연초 대비 MSCI지수 수익률은 -12.8%로 대만,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등 주요 12개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세계 MSCI지수 평균 수익률은 17.6%이며, 선진국은 18.9%, 신흥국은 6.7%로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메트로신문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성료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페르타위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단순히 우호적이지 못한 거시경제 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한국 증시의 연초대비 수익률이 주요국 대비 너무 낮다는 점에서 증시의 기본 체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볼 때”라며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본이 하반기 들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국내 개인투자자마저도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반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는 급격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최초로 1000억달러(약 139조원)를 돌파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탈출은 불가피한 방향

성이고,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현상 등이 완료하려면 경제성장률 회복,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들이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외국인들의 귀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다.

국내 증시의 우상향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는 밸류업 정책 지원과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등이 꼽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서만 19일까지 4.89% 하락했다. 해당 기간 동안 코스피는 3.29% 떨어졌다. 코스피 시가총액 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부진이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황 연구원은 “밸류업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와 투자자들의 이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성”이라며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 주는 노력들이 시장 안정화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지수 하락의 약 3분의 1 정도는 삼성전자 한 종목 때문일 수 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수가 그리 많이 빠진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착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지수 반등에는 삼성전자 자체적 반등 동력의 트리거가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짚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신문·경제 ‘休앤휴’ 2024 입주 아파트 조경 우수단지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니티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정대상입니다.

‘2024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30여곳 입주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심사방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상명 :

대상,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1월 27일

metro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태백시에 들어선다

태백시, 부지유치 공모에 유일 지원
부지선정위, 해당 부지 타당성 조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 연구시설(URL)이 강원도 태백시에 들어설 전망이다. 해당 시설은 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 기술 실험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에 태백시가 유일하게 지원, ‘공단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해당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

사에 착수했다. 부지 현장조사에서는 시설이 들어설 지하 약 500m 주변 암종 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한다. 조사에서 화강암이나 퇴적암 등 결정질암 구조가 확인돼야 한다. 이후 시·도의회 동의와 주민 동의 등 수용성 평가 등 절차를 거쳐 12월 셋째 주께 최종 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부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평가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 국내 첫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이 생

긴다. 현재까지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이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다.

지하연구시설 구축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운영기간은 일부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총 사업비는 기술개발 투자비를 제외하고 약 5138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시스템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등

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특히 방폐물 처분을 위해 개발한 용기가 고압 등 유사 조건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지 등 안전성 실험이 이뤄진다. 지하연구시설에서 개발된 기술은 향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된다. 아울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지고 일반 국민들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하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당초 부지유치 공모에는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10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원이 무산됐다. 해당 시설이 향후 건설되는 방폐물 처리장과 같은 조건을 갖추다보니, 향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태백시의 경우 올해 1월 장성 광업소가 폐쇄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 부지 유치에 적극 나섰다. 태백시는 지난 7월 연구시설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공단과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열어 안전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공단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높아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추경호, 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입장 밝혀 /사진 뉴시스
▲ 1심 유죄 이재명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윤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인용... 보증금 3000만원
▲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인 유족 11명 참석... 비용 우리 측 부담



▲ 잼버리 애크단지 ‘청소년센터’ 국제교육원 활용 속도나
▲ 서울 도심에서 전국농민대회... “농민 말살하는 윤 정권 퇴진” /사진 뉴시스

러-북 군사협력 규탄 결집... ‘트럼프 2기’ 안전장치 마련

尹 대통령, 중남미 순방 마쳐

美·日·中 등 주요국 정상과 회담
시진핑 방한 예정 등 中 관계개선
미-중 갈등 속 ‘국익’ 좌표 외교
尹 제안 ‘한미일 사무소’ 설치 결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 차 남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의 무대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결집했다. ‘트럼프 2기’ 시대 불확실성에도 대비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담도 가졌다. 종전의 ‘가치외교’ 중심에서 외교의 무게추를 ‘국익’으로 옮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G20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자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제1세

션에서 러시아 측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한 것

도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다음 순서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연달아 규탄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11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8일에는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가치외교’)에 집중됐었는데, 이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언급되면서 이목이 집중됐

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보가 ‘가치외교’ 기초의 수정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러북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 및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윤 대통령이 국익을 좌표로 삼아 외교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한일 정상회의도 가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한미일 관계의 제도화도 꾀했다. 15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사무소’ 설치가 결정됐다. 한미일 사무소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상시 협력 사무국이다.

/서연 기자 syj@metroseoul.co.kr

알리·테무, 책임회피 등 ‘불공정약관 가득’

공정위, 13개 유형 47개 조항 시정
개인정보 사실상 무제한 수집 포함

중국의 e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에 입점업체나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민사소송제기 금지, 재판받을 권리 포기 조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 총 13개 유형 47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두 플랫폼 사업자 이용약관을 들여다 본 이유는 최근 해외직구 매가 크게 증가하며 위해물품 유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아졌고 거래규모도 3.3조원으로 미국(1.9조원)을 크게 따돌린 상태다. 중국계 e커머스 국내 사용자는 현재 대략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올해 10월 기준 알리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G마켓(528만명)을 크게 앞지른 상태다.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된 조항은 알리는 16개, 테무는 31개였다.

우선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천 연수구 인천본부세관 통합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직구 물품 통관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항이 다수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알리 이용약관을 보면, ‘플랫폼 이용 구매자와 판매자는 사이트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후속 행위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종류의 책임 또는 피해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테무 이용약관도 ‘당사는 테무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

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을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고,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이에 알리·테무는 공정위가 지목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기로 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 처분 권리를 명시하며, 분쟁 발생 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테무는 이 사건 심사 전까지만해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가,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난 5월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게재했다”며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라울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IMF 연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IMF, 올해 한국 성장률전망 0.3%p 내려

1개월 전 제시 2.5%→2.2% 조정
韓 달러 환율시장 구두개입에 반감

국제통화기금(IMF)이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개월 전에 제시한 2.5% 대비 0.3%포인트(p) 내렸다. IMF는 또 이달 중순 단행된 우리 정부의 원·달러 환율시장 구두개입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달 한국을 찾은 ‘IMF 연례회의 미션단’은 보름가량 이어진 2024년 연례회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전망치를 발표했다. 앞서 19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

라울 아난드 IMF 미션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2024년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수요 회복의 약세로 일부 상쇄될 것으로 봤다. 내수 부진 등에 따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IMF는 지난 7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0.2%p 올려 잡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까지도 이를 유지했으나 이번 연례회의를 거치며 지난 4월에 제시한 2.3%보다도 낮은

2.2%까지 낮췄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2.0%로, 지난 10월(2.2%) 대비 0.2%p 하향했다. IMF는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국 통화 절상 또는 절하 시도와는 별개로, 개입 자체를 문제삼은 대목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환율시장 구두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

IMF는 한국 경제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외투자 규모 1183억 달러 증가 2조2135억 달러로 ‘역대 두번째’

한은,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
순대외금융자산 1194억 달러↑
9778억 달러로 3연속 최대폭 늘고
외국인 韓 투자액 11억 달러 줄어

올해 3분기(7~9월)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규모가 1183억달러 증가하면서 2조5135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두번째 규모다. 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규모는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1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을 보면 3분기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은 9778억달러(1360조220억원)를 기록했다.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9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 대비 1194억달러(166조495억원) 증가하면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포함한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로 분류되는 ‘대외금융부채’를 뺀 수치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가 해외 금융

상품을 사거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금액을 뜻하는 대외금융자산은 2조5135억달러로 나타났다.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183억달러 늘었다.

거주자의 증권투자는 미국 증시 호조로 해외 주식투자가 지속되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채권투자가 증가하며 646억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분증권은 466억달러 증가했고 부채성증권은 179억달러 늘었다.

박성곤 경제통계국 국외투자 통계팀 팀장은 “투자비중이 가장 큰 미국의 주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순투자거래와 평가잔액이 증가했다”며 “거래요인과 비거래요인이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대외금융부채는 11억달러 감소한 1조5357억달러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2940억달러로 190억달러 증가했다. 금융 및 게임업종에 투자가 지속되고 전 분기와 달리 원화표시 부채에 미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외국인의 증권투자는 부채성증권투자가 266억달러 늘었으나 지분증권이 533억달러 줄면서 267억달러 감소했다.

박 팀장은 “부채성증권 투자는 직접

투자와 같이 달러환산액이 늘면서 증가했다”면서도 “외국인의 주식투자 때도 전환과 국내주식 하락으로 지분증권이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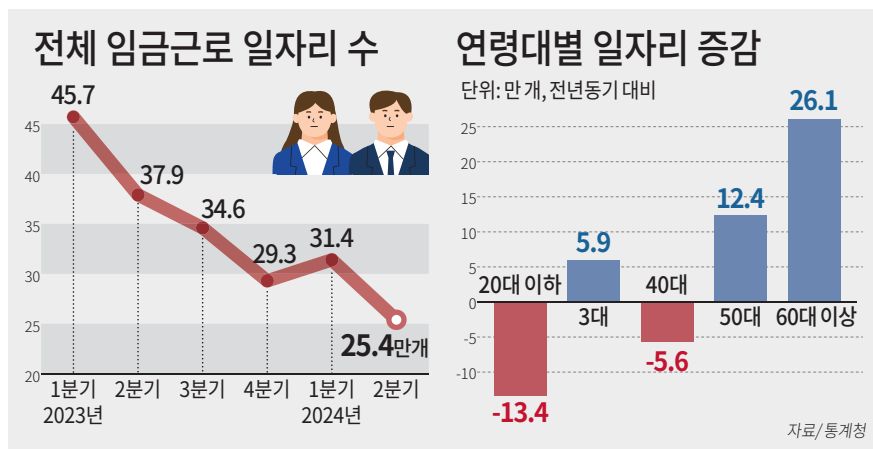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780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34억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은 일정시점에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 또는 이자잔액(채권 잔액)이며, 대외채무는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내야하는 원금 또는 이자잔액(채무잔액)을 말한다.

대외채권은 1조807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410억달러 늘고, 대외채무는 7027억달러로 같은기간 444억달러 증가했다.

대외 채무 중 만기가 1년 이하인 외국 채무 비중은 22.6%로 전분기 대비 1%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외국 채무 비중은 37.8%로 전분기 대비 3.4%p 늘었다.

박 팀장은 “이번 단기와채 비중이 증가한 것은 외화수급 불균형이 아닌 외국인의 단기채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우리나라 외채건전성은 과거대비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양호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일자리 수 늘었지만 20대는 13만명 감소

통계청, 2분기 일자리 동향

올해 2분기 일자리 수는 연령대별 비교에서 20대 이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각각 13만 명, 5만 명 넘게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83만900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25만4000개 늘어났다.

전체 2084만개로 25만개 늘어
60대 이상·50대·30대 늘었지만
20대·40대에서 감소세 이어져

하지만 나이대별로 보면 청년층 고용 측면에서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60대 이상(26만1000개)과 50대(12만4000개), 30대(5만9000개)에서는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3만4000개)와 40대(-5만6000개)에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대는 지난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7개 분기 연속으로 일자리 수가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감소 폭까지 확대되고 있다.

29세 이하만 보면 도·소매(-2만1000개)와 정보통신(-1만7000개), 보

건·사회복지(-1만6000개) 등의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일자리는 2017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분기(62만8000개), 3분기(59만7000개), 4분기(49만1000개), 2023년 1분기(45만7000개), 2분기(37만9000개), 3분기(34만6000개), 4분기(29만3000개) 등 7개 분기 연속 증가 폭이 둔화됐다. 다시 올해 1분기 31만4000개로 폭이 커졌으나 2분기 들어 뒷걸음질했다.

1년 전과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를 뜻하는 ‘지속일자리’는 1494만1000개(71.7%), 퇴직·이직으로 인한 ‘대체 일자리’는 344만4000개(16.5%)로 집계됐다. 또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45만4000개(11.8%),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19만9000개였다.

산업대분류별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13만 개), 사업·임대(3만2000개), 협회·수리·개인(3만 개) 등에서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3만1000개), 교육(-9000개), 부동산업(-8000개) 등은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3개 분기째, 부동산업은 5개 분기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PC·냉장고 수리도?... ‘생활밀착형 보험’ 뜬다

캐롯손보 ‘주택종합보험’

화재는 물론 가전제품 수리 특약

삼성생명 ‘일상생활플랜보험’

골절·화상 등 특약 32종 세분화

롯데손보 플랫폼 ‘앨리스’ 운영

최소보험료 1000원대 MZ세대 호응

일상 속 예기치 않은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장 영역을 생활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활밀착형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은 최근 ‘주택종합보험’을 선보였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등 다양한 일상생활 사고를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기존 주택화재보험과 달리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특약으로 주방 및 생활가전과 함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캐롯손해보험은 국내 최대 IoT 스마트홈 업체 ‘아카라라이프’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주택 관련 사고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캐롯손해보험은 “이번 주택종합보험 출시를 통해 주택보험 영역으로 IoT 기기 연계 사업을 확장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앞으로 관련 제휴사들



캐롯손보가 생성한 일상생활 보험 관련 이미지.

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택종합보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올해 4월부터 ‘일상생활플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삼성생명에서는 처음으로 출시한 생활 밀착형 임베디드 보험이다. 임베디드 보험은 제품 및 서비스 구매와 함께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일상생활플랜보험은 주보험에서 재해를 보장한다. 담보를 세분화한 32종의 특약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조합형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골절 ▲갑상 ▲화상 ▲식중독 등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을 맞춤형으로 조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굿데이 일상생활플랜보험은 언택트 거래의 증가와 함께 모든 영역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발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의 강자로 꼽힌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8월부터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운영하고 있다. 앨리스에서 체결된 보험 서비스(상품)는 출시 11개월 만인 지난 7월 계약 10만건을 돌파했다.

출시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보험서비스 체결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이후 가입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지난 3월엔 5만건, 5월엔 8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앨리스 출시 1주년 맞이 디자인 테마를 전면 개편했다. MZ세대를 사로잡은 레트로(복고) 열풍을 고스란히 담고 ‘나이트 피버’(Night fever) 테마로 탈바꿈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앨리스는 최소 1000원대의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험 서비스를 쉽게 가입할 수 있어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6개월 쏜다

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로 확대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현재 90일이지만,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출산 전후 휴가는 현재 90일이지만,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여기서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

난 아기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부는 현재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와 말기(임신 36주 이후)에만 허용됐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앞으로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여기서 고위험 임신부란 다탄임신, 당뇨병, 출혈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뜻한다.

아울러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콘텐츠·굿즈’로 수익 개선… 유통업계, 새 먹거리 ‘IP사업’

디깅소비 결합한 캐릭터 인기 폭발
굿즈 펀딩 급성장에 선택한 생존 해법
진로 등 캐릭터 마케팅 브랜드 강화
국내외로 뻗어가는 캐릭터 비즈니스

유통업계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IP사업을 꺼내 들었다. 굿즈 등 IP를 활용해 수익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MZ세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디깅소비’가 유통업계의 이 같은 전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캐릭터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캐릭터 IP 활용 상품을 구매해 본 소비자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75.8%를 차지했다. 국내 캐릭터 IP 시장 규모는 2020년 13조6000억원에서 내년 16조2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펀딩 플랫폼 와디즈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캐릭터 굿즈 펀딩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12%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캐릭터 굿즈 펀딩은 전년보다 64% 증가했는데 올해는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셈이다.

펀딩 플랫폼에선 IP 보유 기업이 펀딩을 통해 선주문을 받고 수요를 파악해 굿즈를 제작, 재고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특성이 가격 대비 품질이 낮고 구매 환경도 열악했던 기존



와디즈에서 판매한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관련 상품.

/와디즈

굿즈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상품의 소장 가치를 높이는 한정판 판매도 원활하다.

실제로 와디즈에서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굿즈 펀딩에 모인 돈은 15억원에 달한다. ‘외톨이 THE ROCK!’의 굿즈도 목표 대비 8410%인 1억 5000만원의 펀딩 성과를 달성했다. 애니메이션 굿즈뿐만 아니라 루피, 진로 두꺼비, 플레이모블 등 캐릭터 관련 프로젝트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와디즈의 캐릭터 굿즈 카테고리의 목표 달성율은 평균 4000%를 육박하고 펀딩 결제건수도 전년 동기대비 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IP 굿즈의 인기에 와디즈는 국내 최

대 콘텐츠 전문회사 대원씨아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8개월 만에 누적 펀딩 8억 4000만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대원씨아이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만화 IP를 와디즈의 강소 제조사와 연결하는 협업을 통해서다.

뽀로로 등의 IP를 만든 콘텐츠 스타트업 오픈은 지난달 인코드 엔터테인먼트와 캐릭터 음원 사업 및 IP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콘텐츠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어린이 작곡가를 소개하는 음원 IP 콘텐츠 사업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라이선싱 사업 등에서도 양사는 자체 IP와 기술력을 활용한다. 오는 2025년에는 제주 지역에 가족형 테마공간도 조

성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한 자체 캐릭터 벨리곰의 IP 사업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18년 분홍색 곰 캐릭터 ‘벨리곰’을 선보인 이후 현재 170만 수준의 팬덤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벨리곰 콘텐츠 수출을 본격화 하면서 매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롯데홈쇼핑이 벨리곰 IP 사업으로 발생한 누적 매출은 200억원에 이른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보다 20% 넘게 신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태국, 일본, 대만 등 현지 기업과 벨리곰 IP 활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벨리곰 매치랜드’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진출했다. 지난 7월 영국에서 1차 론칭을 기점으로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세부적인 시기는 잡히지 않았으나 국내 출시 시점을 올해로 내다보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는 썬데이를 맞아 키즈 콘텐츠 ‘캐릭터 퍼레이드쇼’를 최근 전개했다.

‘캐릭터 퍼레이드쇼’는 화제성 높은 IP브랜드들과 콜라베해 대형 풍선을 선보이는 ‘스타필드 별론 페스티벌’과 함께 스타필드 대표 어린이 행사다. 이번 ‘캐릭터 퍼레이드쇼’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총 60종의 코코몽, 로보카폴리

같은 캐릭터들이 출동해 다양한 퍼레이드를 선보인 바 있다.

하이트진로도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IP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출시하며 연말 시즌 마케팅을 강화한다.

두꺼비 캐릭터는 2019년 4월 출시한 ‘진로’ 소주 모델로 귀엽고 앙증맞은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산타 두꺼비를 활용한 포토존, 키링, 토파 등 소비자 경품으로 준비해 유행 채널을 공략하는 한편, 독립 매대를 비치해 자이언트 산타 두꺼비 트리로 가정 채널을 겨냥한다.

또 국내 최초 주류 캐릭터탑 ‘두겹상회’를 오픈하는 등 다양한 굿즈들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캐릭터를 활용한 유통업계의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IP산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여기에 MZ세대 사이에서 자신의 관심에는 관심을 쏟는 영역에서 돈을 아끼지 않는 ‘디깅소비’ 트렌드까지 확산되면서 앞으로 IP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유통업계가 IP를 활용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수익개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트렌드와 소비 행태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추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바사, ‘스카이셀플루’로 글로벌 백신시장 공략

‘스카이셀플루’, 세계일류상품 선정
세계 최초 세포배양 방식 인증 획득
자체 백신으로 해외 인허가 확대 추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사업을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한 ‘스카이셀플루’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에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국내 독감 백신 중 스카이셀플루가 유일하게 거둔 성과다.

4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인 스카이셀플루는 임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세포배양 방식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사

전적격심사(PQ) 인증을 획득한 독감백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세포배양 방식은 유정란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접종 가능하다. 또 세포배양 방식으로 제조한 백신은 유정란을 이용해 생산한 백신에 비해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 효과적이다. 기존 유정란 방식 대비 생산 기간도 짧아 대유행 등 유사 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스카이셀플루 해외 진출이 확장되면 매출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3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616억원, 영업손

실 39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또 올해 3분기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누적 매출은 1107억원, 누적 영업손실은 877억원이다. 올해 전체 누적 매출에서 자체 백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로 785억원 수준이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3분기 스카이셀플루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매출은 증가하는 등 4분기에도 자체 백신 매출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스카이셀플루 3분기 매출은 3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요 백신들에 대한 글로벌 인허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공격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국(BPOM)으로부터 스카이셀플루 품목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 국내에서 개발된 독감백신이 인도네시아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0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데다 인도네시아 독감백신 시장 크기는 오는 2030년 약 926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시장성까지 갖췄다는 것이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3분기 백신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306억원이다. 전년 동기 연구개발비 353억원과 비교하면 13% 축소됐지만, 올해 3분기 매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스카이셀플루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대표 백신 브랜드를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대비 49.7%에 달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구개발 역량 제고 측면에서 지난 10월 미국 바이오기업 피나바이오솔루션에 300만달러를 투자해 접합백신 핵심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기업은 폐렴구균, 수막구균, 장티푸스 등을 예방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3분기 대외채무 6.7% 급증… 외채건전성은 안정적 유지

기재부, ‘대외채권·채무 동향’
대외채권 3.9% ↑, 순대외채권은 ↓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직전분기에 비해 대비 6.7% 늘어난 70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채건전성 지표가 소폭 악화했지만, 과거 평균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대외채무가 전 분기(6583억 달러) 대비 6.7%(444억 달러) 늘어난 7072억 달러로 집계됐다.

만기별로 단기외채(1년이하)는 1587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68억 달러 늘었다.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외채는 276억 달러 늘어난 5440억 달러였다.

부문별로 ▲정부(222억 달러) ▲중앙은행 (30억 달러) ▲은행 (58억 달러)에서 늘었다.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을 합한 기타 부문에서도 134억 달러가 증가했다.

대외채권은 1조 807억 달러로 전 분기(1조 397억 달러) 대비 3.9%(410억 달러) 늘어났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780억 달러

로 전 분기 대비 0.9%(34억 달러) 감소했다.

외채건전성 지표는 전 분기이 비해 상승했다.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분기 21.6%에서 3분기 22.6%로 높아졌다. 또 보유액 중 단기외채 비중도 34.4%에서 37.8%로 커졌다.

정부는 지표들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전 3개년 분기 평균(26.1%, 38.4%)을 모두 밑돌아 과거 평

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역시 올해 3분기 말 기준 156.2%로 규제 비율인 80%을 크게 상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미국 대선 여파, 중동 정세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종=김연세 기자 kys@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르게 行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라, 옳은 길을 가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이 됩니다

바른 경영, 바른 금융이란
오래전부터 알고있던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
그 가치를 고객과 함께 하는 것,

BNK 금융그룹이
바른 경영으로 바르게 行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씨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한동훈, ‘유능한 與’ 강조… 이재명, 일관된 민생·경제행보

한동훈 ‘우상향 성장 통한 복지’ 탄력
금주 민생경제특위 본격 가동
효과 지켜보아야… 野와 소통 ‘지적’

이재명, 경총·개인 투자자 만나 논의
진보적 이슈에 손 댄다… 우려 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의 정쟁과 본인을 둘러싼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먼저, 한동훈 대표는 민생 행보를 하면서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전후로 드러난 계파 갈등과 당정관계의 불안정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한 대표가 강조하는 ‘우상향 성장을 통한 복지 선순환’이 힘을 받게 됐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이자 하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 여당 대표 최초로 한국노총을 방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개혁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 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정년 연장 문제 등을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이견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사회 전 분야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여의도의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 대표 취임 후 출범시킨 데 이어, 이번 주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하는 민생경제특위는 민생경제 현안을 살펴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까지 추진해 ‘유능한 여당’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한 대표의 민생 행보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지는 세심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한 대표가 적극 추진해 당론 법안까지 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주는 조항을 삽입하길 원했으나, 특정 산업 분야의 국가 재정 투입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임의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채 발의됐다.

또, 상임위에서 민주당에 의석수로 밀리는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원외’인 한 대표가 더욱 더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음에도 연일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은 3심까지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된 경제 상황에 제1야당 대표가 해오던 민생·경제 행보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주주 총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

회(경총)를 찾아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와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엔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오후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사회에서 ‘을’의 위치해 처해 있는 이들의 정책을 마련하는 ‘을지로위원회’ 행사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며 민생 분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도 실시가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여당의 반대와 내부 반발로 폐지하면서, 이 대표의 ‘사이다’ 같은 정책 추진력이 빛이 바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행정가 시절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놔던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중도층이 거부하는 진보적인 이슈에 손을 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엔 전국산인연합회를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주와 다음주 주말에 예정된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檢 독재정권·무속인이 미는尹 정권
특검법 처리·국회 국정조사 촉구”

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15개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이하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을 먼저 주도하기에는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야권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해왔지만 현재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초안은 7개 항목에 걸쳐 세부사항 15개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실현 의무 위배(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거부권 남용, 채 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에 불과한 혁신당으로는 단독 발의를 할 수 없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흑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혁신당과 함께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도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 개헌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170석의 민주당이 동참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참하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으로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또 지난 총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이 때문에 ‘탄핵’ 이슈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아울러 야권 내에서 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이고, 혁신당은 여건이 성숙되도록 돌과 역할을 하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국정원 “北, 러시아에 자주포·방사포 수출”

북한 병력도 함께 파병 가능성 있어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백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

국정원은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이고, 운용 교육을 위해 북한 병력도 함께 파병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병 동향에 대해선 “11군단 병력으로 구성된 파병 인원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러시아 공수 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부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피해 규모와 작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李 “韓 디스커버리 제도로 中企 기술보호”

중소 기술침해, 기업 생존 직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기업은 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을 만드는 업체인 ‘귀뚜라미’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가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 업체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고 보고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

과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상대 기업의 기술 유출이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피해 개인이나 기업이 불리했다.

/박태홍 기자

한양대학교의 클래스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온라인으로
정규 학사 학위 취득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교
- ✓ 글로벌 TOP100 6위
- ✓ 서비스품질지수 최다 1위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학생 수(16,802명)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최다 1위
사이버대학교 10년 연속 1위(총 18회 선정)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교 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4년 12월 01일(일) ~ 2025년 1월 16일(목)

입학
지원



건축도시건설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 /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마케팅학과 / 생산물류유통학과 / 재무·회계·세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 광고미디어학과 / 교육공학과 / 법·공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부동산학과 / 사회복지학과 / 아동학과 / 호텔외식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 / 미술치료학과
/ 상담심리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예술문화디자인학과 / AI산업디자인학과 스포츠마토학부 AI융합자유전공학부

입학문의 | 02.2290.0082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악화 심화… 보험료 인상 압박 커져

KB손보, 3분기 손익 24억 ‘적자’
삼성·DB·현대, 절반 이상 줄어

계절적 요인 더해 지속상승 예고
업계 “차 보험료 인상 불가피”

손해율 상승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으나 차보험손익은 첫 적자를 기록하면서 곤두박질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차보험손익이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4곳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약 85%에 달한다.

대형 손보사의 차보험손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감소하면서 적자 전환을 기록한 곳도 나왔다. KB손해보험은 올해 3분기 차보험손익으로 24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분기(206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올 3분기 누적 차보험손익은 327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947억원) 대비 65.5% 급감했다.

올 상반기 차보험손익 1위를 기록한 DB손해보험도 악화 흐름을 피하지 못



첫 지피티가 생성한 차보험손익 감소 이미지.

했다. DB손해보험의 올 3분기 누적 차보험손익은 1780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2650억원) 대비 10.7% 감소했다.

특히 3분기만 놓고 보면 DB손해보험의 차보험손익은 160억원으로 전년 동기 830억원 대비 81.3%나 쪼그라들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포인트(p), 4.9%p 악화했다.

삼성화재의 올 3분기 누적 차보험손익은 1630억원으로 전년 동기 2440억원 대비 33% 감소했다. 3분기 차보험손익은 140억원으로 전년 420억원 대

비 66% 급감했다. 삼성화재는 “누적된 보험 요율 인하로 보험손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올 3분기 누적 차보험손익으로 9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2070억원 대비 53.9% 감소했다. 1분기 420억원, 2분기 400억원을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 줄어들면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보험업계는 차보험손익 급감의 원인으로 지속된 차보험료 인하를 꼽았다. ‘상생금융’이란 명목으로 인하했던 차보험료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는 분석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2022년 1.2~1.4%, 2023년 2~2.1% 인하했고 올해 2월에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상생금융 차원에서 2.5~3% 보험료를 내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는 곧바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이어진다”며 “자동차보험은 덩치가 커 보험사의 손익 측면에서 영향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연말까지 손해율은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차보험손익 적자도 악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적자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흑자로 전환한 것”이라며 “보험사 자체적으로 손해율을 신경쓰겠지만 충분한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보험료 인상 요인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국민카드 ‘퓨처나인 8기’ 기업 사업모델·성과 소개

KB국민카드가 스타트업 발굴 및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KB국민카드는 ‘퓨처나인(FUTURE9) 8기’에 참여한 기업의 사업 모델과 협업성고를 소개하는 ‘데모데이(Demo Day)’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퓨처나인 8기는 기존 연 1회 모집이 아닌 상하반기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자는 취지다.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

주요 협업사항은 ▲중소사업자위한 상품 광고 자동 생성 ▲KB페이 내 음원감상 포인트 적립 ▲고객 대상 리퍼폰 할인 프로모션 등을 소개했다.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은 “이번 행사는 KB국민카드와 스타트업들이 지난 8년간 펼친 동반성장과 미래혁신에 대한 노력과 함께 프로그램 성과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규식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AI사업담당과 진미경 신한카드 고객최고책임자(왼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SKT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인공지능 접목 MOU

신한카드는 SK텔레콤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규식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AI사업담당 및 진미경 신한카드 고객 최고 책임자(CCO) 등을 포함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SK텔레콤의 AI 기술인 ‘FAME’를 도입한다. 위치와 이동 데이터, 전화·문자 수신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이다. 금융사의 인증 체계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단 설명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사와 통신사가 신용카드 분실·도난 보상 판정 및 스미싱 차단을 위해 협력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신흥 부촌’ 성동구… “당분간 핫플레이스 지속될 듯”

성동구 아파트 가격 9.54% 올라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
한강변, 도심 속 숲세권 충족 인기

서울 성동구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11월 둘째 주까지 9.54%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는 강남3구(▲서초 8.17% ▲송파 7.28% ▲강남 6.62%)를 뛰어 넘은 수치다.

KB금융이 한국부자의 현황 등을 분석한 ‘한국부자보고서’의 지난해 ‘서울 거주 지역’ 항목을 보면 강남, 서초, 종로, 용산에 이어 성동구가 처음 부촌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성동구는 성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일명 서울숲 대장주로 불리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198㎡는 지난 7월 145억원에 거래돼 2024년 서울 아파트 최고 거래가 3위를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조감도.

/대림사업

기록했다. ‘트리마제’는 이달 전용면적 136㎡가 6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매매가격(59억원) 대비 5억5000만원 상승했다.

성수동은 과거 서울의 대표 준공업지대로 대형 공장부지에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곳은 카페와 음식점으로 리모델링되며 주목받는 상권이 됐다.

2024년 3분기 공실률은 3.4%로 전국 평균(12.7%)보다 크게 낮은 수치

다. 월세없이 전개되는 팝업스토어 등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 아이보스가 2024년 상반기 677개 팝업 스토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팝업스토어 오픈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 1위가 성수로 나타났다. 패션 잡화, 케이팝, 식음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팝업의 성지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젊은 층이 몰리자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IT 스타트업 등이 들어섰고

황병우 “뜰에 얹매이지 않는 혁신이 필수”

(DGB금융 회장)

DGB금융그룹 경영진 워크숍

DGB금융그룹은 시중금융그룹 전환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황병우 DGB금융 회장을 포함한 그룹 경영진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DGB금융그룹 전 계열사 경영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중

금융그룹으로서 성공적인 포지셔닝을 위한 2025년도 경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황병우 회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전 계열사의 전략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그룹이 직면한 경영환경 및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른 성장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계열사별 비

전과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내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도 다졌다.

전략회의 이후에는 ‘공정과 신뢰의 힘’이란 주제로 외부 강사를 초청 특강, 이진형 KT 상무의 ‘신기술(생성형 AI) 트렌드 및 인사이트’ 주제 강연 등이 진행됐다.

황병우 회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별 전략과 재무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겠다”며 “발빠른 디지털 전환 등 뜰에 얹매이지 않는 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DGB금융

LG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 ‘안정 속 혁신’ 기조 강화

계열사 사장단 대부분 유임 무계
주요사업 ‘ABC’ 중심 성과 인정
트럼프시대 대비 컨트롤타워 강화
혁신 위해 일부 세대교체 예상도

LG그룹이 사장단 정기인사와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LG는 앞서 큰 폭의 세대교체를 단행한 데다 이번 실적에서 선방한 만큼 대부분 사장단은 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규 부회장 승진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재 2명으로 줄어든 부회장단을 보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구광모 회장이 혁신 기조를 유지한 만큼 실무 담당 임원진도 젊은 인



지난 9월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한 구광모 회장. /LG전자

재들로 일부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오는 21일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LG그룹은 매년 10월부터 한 달 간 계열사별로 사업 보고회를 진행한 뒤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해왔다.

이번 사장단 정기인사에서는 안정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맞아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안정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봉석(썬) LG 부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핵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회장은 LG그룹의 주요 사업인 인공지능(AI), 바이오(Bio), 클린테크(Clean tech) 등 ‘ABC’를 중심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신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직접 영업한 만큼 조직에 남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 부회장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3M 본사에서 근무하며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생인 조주완 사장은 1987년 LG전자에 입사했으며 2021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재직기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시장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LG전자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LG전자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전에서 AI, 플랫폼, 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다각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는다.

다만 일부 부회장단 승진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선 부회장 승진 후보군으로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거론된다. 이들은 가전 시장의 부진에도 기존 B2C(기업소비자간거래) 중심의 사업을 B2B(기업간거래)로 체질 개선하며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을 받는다.

조 사장과 정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 LG그룹 부회장단은 4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LG그룹의 부회장은 3인 체제였으나 지난해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용퇴하면서 2인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구 광모 회장이 ‘세대교체’와 ‘미래 준비’를 키워드로 내세운 만큼 실무 담당 임원진은 일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앞서 ‘사장단 워크숍’을 열고 그룹 대부분 사업에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LG는 세계 최고, 최조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온 결과”라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고,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LG의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김승연 “글로벌 선점 위해 초격차 확보해야”

〈한화그룹 회장〉

한화오션 사업장 첫 방문
트럼프 러브콜 대응 행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이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

김 회장이 한화오션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 업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 원장도 참석했다.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임직원에게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그린십(Green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한화오션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춘 핵심 연구 거점이다.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력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



김승연 회장(가운데)과 김동관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숍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

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이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 회장은 사업장을 둘러본 뒤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오찬 자리에서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신뢰의 뜻을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기, 車카메라 SW 레벨 3 인증 획득

향운 기능 지원 ‘A-SPICE’
글로벌 완성차 업체 공급 예정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소프트웨어가 유럽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기는 전장용 카메라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인정받고, 해외 완성차 및 전장 부품 업체들의 높은 기술 수준에 대응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오토모티브 스파이스(Automotive SPICE 이하 A-SPICE)’ 레벨 3(Capability Level 3-CL3)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A-SPICE는 자동차용 부품 생산 업체의 소프트웨어 신뢰도와 개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 완성차 업체가 제정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이다.

A-SPICE의 등급은 가장 낮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레벨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A-SPICE 레벨 3은 ‘SW 프로세스가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명확히 관리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자동차 제조사가 요구하는 최고 등급에 해당된다.

삼성전기는 향운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A-SPICE 레벨 3 인증을 획득했다. 전장용 카메라는 눈, 비 등 악천후, 고온, 고압, 초저온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동작해야 하는데, 삼성전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전장용 카메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한다. 삼성전기는 이 프로그램이 탑재된 전장용 카메라모듈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기 혁신센터장 이시우 부사장은 “삼성전기의 전장용 카메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했다”며 “삼성전기는 전장카메라 제품력을 강화해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

제주항공, 신분확인 대상자 편의성 개선

추가 증빙 없이 탑승절차 간소화

제주항공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확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을 개선한다.

2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신분확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 서류를 확인받아야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최초 탑승 시 신분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

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단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이상 13세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확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 글로벌 골즈 앱, ‘앤섬 어워드’ 수상

지구촌 과제 해결 영향력 인정

지구촌 과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삼성전자의 글로벌 골즈 앱(Samsung Global Goals)이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 받았다.

삼성전자가 빈곤 퇴치, 기아 종식 등을 목표로 유엔개발계획(UNDP)과 운

영 중인 ‘삼성 글로벌 골즈 앱’이 제4회 앤섬 상에서 ‘파트너십과 협업·책임감 있는 기술’ 부문 동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앤섬 어워드는 미국의 국제 디지털 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상으로 개인, 기업, 조직 등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해 수여한다.

삼성 글로벌 골즈 앱은 삼성전자와 UNDP가 파트너십을 맺고 빈곤 퇴치, 기아 종식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19년 출시한 앱으로, 약 3억명이 이용 중이다.

갤럭시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 직접 기부나 앱 내 광고 시청 등 방식을 통해 지구촌 과제 해결을 위한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늘어나는 전자폐기물 ‘8200만 톤’ ICT 기업, 자원 순환으로 해법 제시

환경 보호·자원 안정성 관건

삼성,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 획득
SK하이닉스, 자원 순환형 체계 구축
LG, 소비자 참여 유도 환경 캠페인

전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자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일 〈메트로 경제〉취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은 연간 약 5000만톤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UN이 지난 9월 발간한 ‘글로벌 E-폐기물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약 8200만톤에 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EU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소비자 수리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더 쉽게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부 주도로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EPR 적용 대상을 오는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 범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ICT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를 수거해 회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전자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ICT 기업들이 전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유금속(rare metal)을 재활용하는 ‘배터리턴’ 캠페인을 매년 2회씩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배터리턴 캠페인을 통해 약 69톤의 폐배터리를 수거했다”면서 “희귀금속 추출은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원자재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전자폐기물 재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순환형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또한 순환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 국내·외 8개 반도체 사업장 전체에서 ‘UL 폐기물 매립 제로’ 골드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평균 자원 순환율은 98.1%로, 연간 약 60만 톤의 폐기물 중 59만 톤 이상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회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DX 제품 플라스틱 부품의 50%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하고,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재활용 글라스, 알루미늄, 코발트, 희토류 등 다양한 재활용 소재가 적용됐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폐전자제품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활용 협력업체에 엄격한 환경·안전·보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70여 개국에서도 폐제품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629.7만 톤의 폐전자제품을 회수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판매 국가로 수거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2050년까지 누적 2500만 톤의 폐전자제품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LS전선,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글로벌 선도

CIP사와 ‘해울이3 LOI’ 체결

LS전선이 울산 앞바다에서 조성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에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개발 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덴마크의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사와 ‘해울이3 해상풍력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울이 해상풍력 1, 2, 3은 총 1.5GW(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CIP가 울산 연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첫 번째로 추진되는 해울이 해상풍력 3 프로젝트와 관련해 체결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물 위에 설치해 깊은 바다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안이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용 다이나믹 해저 케이블을 개발하고,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내구성을 확보하며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자회사 LS마린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20일 서울시 종로구 ㈜해울이해상풍력발전 사무실에서 열린 ‘해울이3 해상풍력 협력의향서’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조나단 스팅크(Jonathan Spink) (㈜해울이해상풍력발전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선박 취득 등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강화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글로벌 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의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이다. 총 1.5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3개의 발전사업 허가를 모두 획득하고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답파인, 비전AI 기반 식자재 검품·검수 개발

XR 솔루션 ‘DAO’ 활용생산성 20% ↑

XR 공간컴퓨팅 플랫폼 기업 답파인이 비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식자재 검품·검수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AI 바우처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답파인은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 주관 기관인 종합식품 기업 아워홈과 지난 5월부터 협업해 현재 기술검증(PoC) 중이다.

답파인은 기존에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DAO(DEEP.FINE AR.ON·답파인 아론)를 기반으로 검품·검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DAO는 산업 현장의 모든 정보를 원격으로 관리해 안전성, 효율성을 높이는 XR 업무 관리 솔루션이다. 현장 작업자와 본사 관리자는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음성, AR 드로잉·

포인팅, 증강 메뉴얼 등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검품·검수 시스템에는 DAO 솔루션의 주요 기술인 비전 AI 기술이 투입됐다. 비전 AI 기술 중 이미지 속 문자를 인식해 텍스트로 변환하는 광학문자인식(OCR)을 활용해 식자재 라벨을 인식하며, 특히 출원한 템플릿 자동 매칭 방식을 통해 수기 입력을 자동화한다.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한 현장 작업자는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검품·검수를 진행할 수 있다. 답파인 관계자는 “지난달 출원한 특허 기술로 저해상도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객체를 인식, 식자재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경고를 통해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김한배 답파인 CEO는 “인간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작업 생산성을 약 20% 향상하는 것이 목표”고 전했다.

/이혜민 기자

KT, ESG 평가서 최고 등급 ‘AA’ 획득

통신업계 유일 베스트 컴퍼니 선정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 우수 국내외서 지속가능 경영 인정 받아

KT가 국내 통신업계 최고 수준의 ESG 평가 등급을 달성했다.

KT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평가에서 1248개 기업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통신업계에서 유일하게 ‘ESG 베스트 컴퍼니’ 50대 기업에 선정됐다. 한국ESG기준원(KCGS)과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KT는 이번 평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AI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도입 등 에너지 고효율 시설 전환



지난 8월 KT가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활동으로 개최한 ‘디지털 디톡스 캠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 /KT

노력이 돋보였다.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시행 및 기후 공시 정보 공개도 추진했다.

KT는 사회 부문에서도 근로자참여형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2년 연속 ‘KT그룹과 파트너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냈다. 업무상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사례집 발간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고객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체계적인 ESG 경영시스템 구축에도 힘썼다.

또한 KT는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ITU 주관 WSIS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 부문 챔피언 상을 수상하며 ESG 경영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KT ESG경영추진실장 오태성 상무는 “이번 ESG 평가 등급 상승은 KT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KT는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2737가구 ‘대단지’에 월판선 도로망 갖춰

평촌자이 퍼스니티

GS건설

비산3동 주택재건축사업... 오는 25일 특별공급
지상 33층 총 26개동 규모, 일반분양 570가구

GS건설은 ‘평촌자이 퍼스니티’를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나선다.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으로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전용면적 별로 ▲53㎡ 31가구 ▲59㎡ 224가구 ▲77㎡A 163가구

▲84㎡A 54가구 ▲84㎡B 11가구 ▲84㎡C 58가구 ▲84㎡D 12가구 ▲99㎡ 14가구 ▲109㎡ 3가구 등으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다.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인근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월곡~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안양운동장역(가칭) 신설이 계획돼 있다. 월판선은 시흥 월곡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악대로와 경수대로도 가까워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다. 경수대로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단지 반경 3km 내에 홈플러스 평촌점, 이마트 안양점, 롯데백화점 평촌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등 대형 쇼



핑시설과 CGV 평촌, CGV 범계, 롯데시네마 평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비산초등학교가 가까워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반경 1km 내에 비산중, 부흥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방배역까지 400m... 교통·학군 뛰어나

아크로 리츠카운티

DL이앤씨

방배동 일원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7층에 8개동 총 707가구... 일반분양 140가구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으로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140가구다.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400m

거리인 역세권이다. 또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사당IC와 서초IC, 양재IC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이 위치해 있다. 반포동, 대치동 학원가를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방배1동 작은도서관 등도 가깝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가깝다.

단지 조경은 아크로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어우러



진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에는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G.X룸, P.T룸, 전자석 프라이빗한 부스로 구성된 스크린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룸, 사우나 등 입주민의 웰니스 라이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 중심 ‘종로’ 생활권에 ‘트리플 역세권’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건설

총 1223세대 대단지 조성... 일반분양 509세대
삼선초, 한성여중·여고, 경동고 등 ‘도보통학’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선보인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삼선동2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8층, 19개 동, 총 1223세대의 대단지조성된다. 일반분양은 509세대다.

일반분양 물량의 타입별 세대수는 ▲59㎡A 54세대 ▲59㎡B 97세대 ▲59㎡C 218세대 ▲84㎡ 140세대 등이다.

단지는 서울의 도심권역에서도 중심으로 불리는 종

로구 생활권에 속한다. 특히 종로·시청·광화문 등 중심업무지구(CBD)로의 이동이 편리해 뛰어난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도보권에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6호선·우이신설선 환승역 보문역이 자리한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지구(GBD)도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두터몰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서울대병원 등 의료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도보통학이 가능한 삼선초, 한성여중, 한성여고, 경동고 등을 비롯해 반경 1km 이내에는 다수의 초·중·고교가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는 삼선아동청소년도서관을 비롯해 한성대, 성신여대, 고려대 등 10개의 대학 캠퍼스가 밀집된 교육특구를 형성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삼선초 병설유치원 등 다수



의 유치원이 위치하고,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도 마련될 예정이다.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창경궁, 종묘, 창덕궁, 성북천 분수광장, 삼선공원, 마로니에공원 등이 인근에 자리해 있으며, 단지 옆에는 낙산공원, 한양도성길 등 다수의 녹지공간도 가깝게 위치한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곤지암역 ‘초역세권’... 강남까지 30분대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

지하 2층~지상 22층, 4개동 총 347세대 규모
3600여 세대 곤지암역세권 내 입지조건 최고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2블록에 공급하는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4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347세대로 이뤄져 있다.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곤지암역 인근으로 개발중인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지구, 신대지구 등 3600여 세대의 신규 주거타운 가운데 가장 입지조건이 좋다.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경강선 곤지암역과 인접하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특히 곤지암역을 중심으로 개발중인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지 내에서도 곤지암역을 가장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다.

단지와 맞닿아 있는 경강선을 이용해 판교역까지 20분대로 도착이 가능하며, 강남까지도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통해 GTX-D노선을 계획함에 따라 향후 곤지암역세권 아이파크의 강남 접근성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또 곤지암IC가 인근에 위치해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자차를 이용한 시외 이동도 편리하다.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단지 앞으로 곤지암천 수변공원을 비롯해, 곤지암 근린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곤지암역 남측에 위치한 곤지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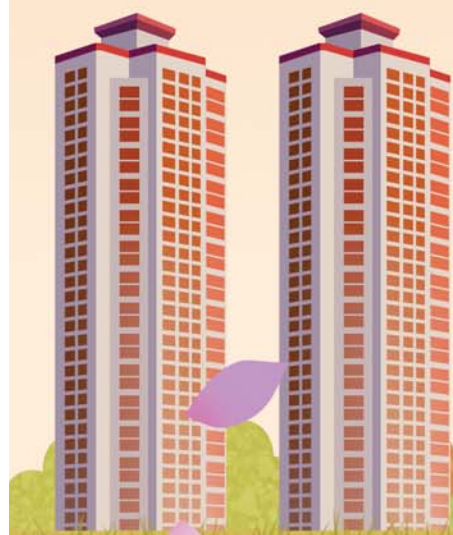
초, 곤지암중, 곤지암고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곤지암역세권 지구 내 초등학교도 신설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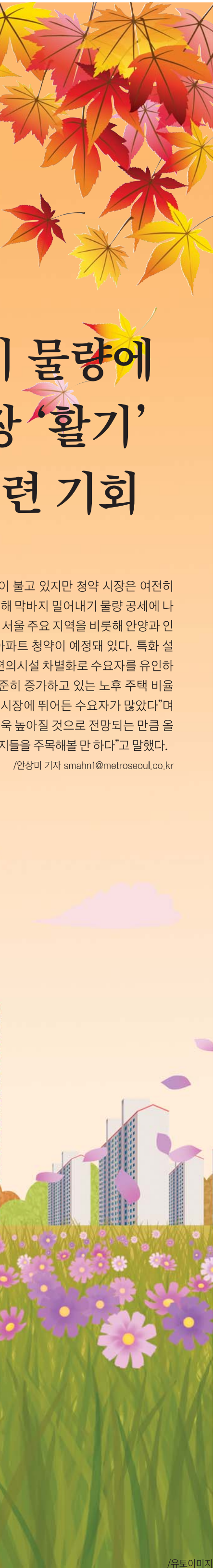
분양 관계자는 “기존의 경강선 뿐만 아니라, GTX 개통시 서울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밀어내기 청약시장 내집 마련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열기가 뜨겁다. 특히 건설사들이 올
서며 분양 물량도 풍부한 상황이다.
천,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새
계와 교통 입지는 물론 공원 조성, 판
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매년 공
과 분양가 상승세로 인해 올해 청약
“특히 분양가는 올해보다 내년에도
해가 끝나기 전에 공급되는 신규 단





역세권·교통권·학세권 ‘3박자’

힐스테이트 등촌역

현대건설

지하 5층~지상 15층 12개동에 총 543세대 규모
올림픽대로·강변북로·공항대로 인접 이동 수월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등촌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43세대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274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분양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A 89세대 ▲59㎡B 14세대 ▲84㎡A 89세대 ▲84㎡B 29세대 ▲84㎡C 53세대 등으로 수요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이뤄져 있다. 힐스테이트 등촌역은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권에 위치해 있어 여의도, 고속터미널 등 주요지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공항대로 등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인근에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의 학군을 품고 있으며, 교육열 높은 목동 학원이 역시 가깝다. 홈플러스, 부민병원, 하나로마트, 목동캐비시장, CGV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봉재산, 용왕산근린공원, 등마루공원, 한강도 가까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다양한 평면 설계를 갖췄다. 판상형 타입은 맞통풍이 가능해 환기가 우수하고, 타워형 타입은 수납 강화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세대 창고 제공 및 버튼 하나



로 대형 수납장을 이동시켜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트랜스포밍 월&퍼니처(일부타입 적용) 옵션도 예정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등촌역은 주택 노후화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축단지로 분양이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등촌역의 견본주택은 강서구 등촌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오션뷰 프리미엄’ 신포역이 코앞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DL건설

총 4개동에 아파트 492가구, 오피스텔 88실
용산까지 40분… 인천내항~부평역 트램 계획

DL건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일원(인천여상주변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총 4개동, 667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 492가구와 오피스텔 88실을 합쳐 총 58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아파트는 ▲59㎡A 86가구 ▲74㎡A 130가구 ▲74㎡B 180가구 ▲84㎡A 62가구 ▲84㎡B 34가구 등이다. 오피스텔은

▲36㎡A 44가구 ▲36㎡B 44가구 등이다.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는 수인분당선 신포역이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신포역에서 약 7분이면 인천발 KTX(예정)와 월곶-판교선(예정)이 들어서는 송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용산까지 가는 급행·특급 열차가 정차하는 1호선 동인천역도 이용 가능해 서울 용산역까지 4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또한 신포역에는 인천내항과 부평역을 잇는 부평연안부두선(트램)이 계획되어 있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진출입도 편리하다. 단지는 인천바다 오션뷰(일부세대 제외)가 가능하고, 원도심에 위치해 기존에 조성된 인프라 이용 역시 편리하다. 인천신흥초, 송도중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인성초(사립초)와 제물포고, 인성여고, 인일여고도 가까운 학(學)세권 입지다. 이마



트(동인천점), 신포국제시장도 단지 부근에 자리한다.

이와 함께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의 중간 지점에 자리해 두 지역 내 인프라를 모두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 산업 단지와의 직주근접도 강점이다.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의 주택전시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일원 인천애플광장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검단호수공원역 예정… ‘펜트하우스’ 노려볼 만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신동아건설

지상 15층 총 11개동에 669세대 규모 조성
특별계획구역 인접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신동아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를 선보인다.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마전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101㎡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 등이다. 특히 총 세대수 가운데 30%(201세대)가 검단신도시에

서 희소성이 높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또한 일부세대는 복층형 테라스와 펜트하우스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검단신도시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의 연장선인 ‘검단호수공원역’이 내년 5월 개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GTX-D 노선도 계획돼 있다. GTX-D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바로 앞으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조성되며, 주변 상업지구 등을 중심으로 학원가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변공원과 다수의 근린공원도 계획되어 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이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자연이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연계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특별설계 공모에 당선된 아파트로 차별화를 더했다. 평면은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총 4개 타입으로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왕길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100% 맞통풍… 근린공원 등 ‘파노라마’ 조망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

금성백조건설

지하 1층~지상 25층 5개동에 총 530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 극대화 ‘4베이 구조’

금성백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지구 B-1블록에 조성되는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5개 동으로 총 530세대 규모다. 세부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75㎡ 244세대 ▲전용면적 84㎡A 171세대 ▲전용면적 84㎡B 67세대 ▲전용면적 84㎡C 48세대 등이다.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주택형으

로 구성돼 있다.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는 비봉지구에 공급되는 마지막 신규 분양 아파트로 ‘예미지’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된다.

모든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4베이 구조에 3면 개방 및 100% 맞통풍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과 산 등 주변 자연환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

주방공간은 전 타입이 6인용 식탁까지 들어갈 수 있게 넉넉하다. 팬트리와 현관창고(일부 타입) 등을 적용해 짜임새 있게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으며, 안방 드레스룸에도 창문을 설치해 채광과 환기를 가능하게 했다.

단지의 공간 구조에는 ‘예미지’ 브랜드만의 특화설계가 반영된다. 휴식과 주거의 경계가 조화를 이루는



단지 배치로 지상은 차가 다니지 않는 100%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했고, 지상주차장을 없앤 자리에는 다양한 식재로 꾸린 조경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특히 단지 내 대규모 중앙광장(약 1만2000여㎡)을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연주의 단지를 구현했다.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STO 법안 재발의… 블록체인 기반 신시장 선점 나선다

증권업계, 토큰증권 활성화 대비 ‘프로젝트 펄스’ 원스톱 서비스 제공
미술품 조각투자·MTS 거래 탭 신설
위킹그룹 발족으로 실무 준비 박차
STO 컨소시엄 ‘ST프렌즈’ 결성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 증권업계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다만 여러 번의 시도와 폐기를 거친 사례들이 있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며 물밑에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을 비롯해 블록체인 글로벌, 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지난 11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서비스 ‘프로젝트 펄스’의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가동에 나섰다. 펄스는 금융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서울 여의도 금융가.

/뉴시스

위해 탄생한 협력 프로젝트이다. 조각투자 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에게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와 금융·법률솔루션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증권은 STO 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STO 법제

화가 통과될 경우 첫 조각투자 거래 상품으로 미술품을 선정하고 MTS 내 STO 거래 탭을 신설해 조각투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부터 위킹그룹을 발족, STO 관련 실무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펌크·토스뱅크등과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

를 결성했다. 이밖에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역시 ‘ST 증권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으로 부동산·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잘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반 토큰과 연계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규제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추진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무위 소속 김제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과 지난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

련 정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 제3항의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 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빠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인프라 구축이 과제인데 아직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자체 토큰증권 인프라를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증권사들은 관련 업체들과 STO 사업 관련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中 증시 반등에도 ‘중학개미 이탈’… 美·中 갈등 변수

CSI300 상승세, 개인 투자자 냉랭
중 정부 부양책, 기대 못 미친 효과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학개미(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11월 1일~18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중화권 증시(상해홍콩증시, 심천홍콩증시, (R)QFII, 중국B주)의 합산 보관금액은 약 8억7766만 달러(1조2214억원)으로 연초(1월 1일~18일 기준) 약 9억5167만 달러(1조3241억원) 대비 8% 가량 감소했다.

이중 상해홍콩증시 투자보관금은 같은 기간 약 11.18%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9월 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증시 반등을 유도했다. 증시 부양책이 발표되자 3108.35(52주 최저)를 기록했던 중국의 CSI300지수도 지난달 8일 4256.10을 기록하며 약 36.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CSI300 지수는 중국 증시의 대표 지수로,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다. 해당 지수는 20일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3986.82로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국내 중학개미들은 이러한 중

국 증시의 상승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중 갈등 우려가 고조되고, 부양책에도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폐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의 후에 발표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고질적인 지방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내용 없이, 지방정부 부채 해소 계획만 담겨 시장에 실망

감을 안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중학개미들의 탈출러시를 부추기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부양 조치가 이어지겠지만 강력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고,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부양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한국거래소가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되는 ‘FIA 선물·옵션 엑스포’에 참가했다.

/한국거래소

거래소 미국 시카고서 ‘세일즈’ 파생상품 마케팅 펼쳐

한국거래소가 지난 19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FIA 선물·옵션 엑스포’에 참가한다. 행사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에게 KRX 파생상품시장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거래소는 이번 행사에서 홍보부스 운영 및 일대일 세일즈 활동을 통해 국내 파생상품시장 인지도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물’ 등 신상품 및 2025년 중 도입 예정인 자체 야간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일 기간 내 해외거래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 현지 기관투자자와의 미팅을 통해 주요 추진사업 홍보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엑스포 참가 결과를 토대로 거래환경 선진화와 파생상품 라인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2025년 FIA 부산 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를 통해 국내 파생시장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비상장 주식 매각 시, 회사에 고지 필수” 한투, ‘절세3종 계좌’ ETF 투자 이벤트

금감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여부’

#. 비상장회사 A의 주주인 B씨는 A사의 주식을 다른 투자자 55명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A사에 알리지 않았다. A사는 매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사는 B씨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 받게 돼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인 사모 발행으로 오인해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 모집 규제를 2회 위반했다. 이에 회사 A사는 과징금 9000만원, B씨는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 증권매출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게 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는데, 회사가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출 당사자인 주주도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과거에 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라도 모집으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모집·매출(1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정기 공시 의무가 생기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함에도 증권신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이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또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누락에 대해 회사나 매출인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발행인은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IRP·중개형 ISA·개인연금 계좌 대상

한국투자증권이 내년 1월 31일까지 뱅키스(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ETF(상장지수펀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2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이른바 ‘절세 계좌’로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개형 ISA,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비롯한, 삼성, 미래에셋, KB, 한화 등 5개 운용사의 ETF에 투자하면 순매수금액에 따라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참가 조건은 운용사별로 상이하며, 여러 운용사 ETF를 동시에 매수할 경우 운용사별 최대 5만원까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적립식 자동매수 이벤트도 진행된다. 적립식 자동매수는 주식이나 ETF 등을 사전에 정해둔 날짜와 금액에 맞게 매달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ETF에 투자하면



뱅크스 절세 3종 운용사 ETF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실제 주문 체결 횟수에 따라 커피쿠폰을 최대 2장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기 이벤트는 동시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전원에게 경품을 지급하며, 이외 다른 운용사는 사전에 고지된 선착순 인원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참가 신청이 필요하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한국투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kova@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

MOBILE WORLD CONGRESSES BARCELONA 2025

세계 최대의 모바일 산업 박람회
최신 모바일 기술, 혁신 및 산업 동향, 5G, 인공지능(AI),
IoT, 디지털 헬스케어, 최신 제품 전시 및 발표, 글로벌 네트워크

개최 장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Spain Barcelona Fira Gran Via]

개최 일자 : 2025년 3월 3일 (월) ~ 3월 6일 (목)



국제 방위 전시회 및 컨퍼런스 2025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2025

중동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방위 산업 & 정부 & 군대 및 군인 최신 방위 기술 및 장비,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 발표 및 세미나

개최 장소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 (ADNEC)]

개최 일자 : 2025년 2월 17일 (월) ~ 2월 21일 (금)



프랑스 파리 항공 에어쇼 2025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2025

세계 최대 항공우주산업 전시회 '파리에어쇼 2025'
항공기 제조업체 & 방위 산업 & 우주 산업 & 부품 및 장비
비즈니스 및 일반 항공기, 연구 및 개발

개최 장소 : 프랑스 르부르제
[Parc des Expositions du Bourget]

개최 일자 : 2025년 6월 16일 (월) ~ 6월 22일 (일)

www.snmiles.com

MICE, 일반 여행,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비즈니스 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산업부, 美 트럼프 행정부 대비 반도체·조선업계 만나 영향 점검

반도체 간담회서 ‘관세 인상’ 도마 업계,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등 우려 대미 투자·수출 추진 정부 지원 건의 조선산업, 새로운 개척분야 기대감 업계, 韓-美 조선협력 확대 환영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우리 주력 수출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 점검을 이어 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반도체와 조선 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에 따른 우리 업계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자동차, 철강업계와도 만나 업종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는 대선을 거치며 줄곧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발제를 통해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라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美 신정부 대비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 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라며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 합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해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미 간 협력을 위해 미국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임금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통상전략회의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홍문표(뒷줄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경기지역본부를 찾아 올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aT

홍문표 “콩 안정적 보관환경 조성해야”

(aT 사장)

보관농산물 현황·시설 점검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식량안보와 관련 “기후위기에 대응해 ‘오곡’의 하나인 콩의 재배 및 보관 환경을 지속가능·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전날 인천 소재 수입콩 정선업체 선광을 찾아 정선가공 및 포장 및 보관환경 등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필수식품인 콩의 안정적인 보관 환경 조성이 필수다”라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홍 사장은 정부 비축물자를 보관 중인 aT평택비축기지를 찾아 보관농산물의 품질 및 시설 안전도 점검했다.

또 aT 서울경기지역본부와 인천지

역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주요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 사장은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일선으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농어촌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제26회 한국 4-H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사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촌의 미래는 젊은 인재들의 손에 달려 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상식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 청소년 및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환경부,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성과 발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개최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해 온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관이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석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유지·보수와 주거

환경 개선(석면 해체·제거 및 리모델링)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과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1751곳을 대상으로 석면 건축물 안전진단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진행, 약 105억원을 투입해 257곳의 아동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농식품부 “식품산업, 전폭적으로 지원”

푸드위크 2024 개막식

오는 23일까지 코엑스에서 행사 진행 31개국·1054개社, 4개 전시관 운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일 “정부는 우리 식품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푸드위크 2024(대한민국식품대전)’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첨단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식품산업이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 위기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식품산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과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며,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본의 ‘푸덱스’, 프랑스의 ‘시알’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행사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고, 오늘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기술력을 가진 K-푸드테크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며 새로운 수출 융합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식품 분야에 적용되는 푸드테크 기술은 식품 원료 생산과 가공에서부터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식품 프랜차이즈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동문 메인무대에서 열린 ‘푸드위크 2024(대한민국식품대전)’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식에서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훈장을 받았다. /김대환 기자

까지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31개국, 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여하며,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이 운영된다. 특히, 정책홍보관에서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K-푸드로의 성장과정 등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 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푸드테크관의 경우 푸드테크 관련 유망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인력 부족, 기후변화, 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 창업,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

식도 함께 열렸다. 은탑산업 훈장은 국내산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한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가 받았다.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에 힘쓴 김형욱 북경매일유업유한공사 법인장과 국내 음료·주류 식품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이양수 롯데칠성음료 글로벌사업본부장 등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송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한다”며 “이번 행사가 농업과 식품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K-푸드테크와 식품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코트라, 中 수출관리제도·법체계 가이드 제공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 보고서 발간

중국의 수출 허가부터 통제 절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와 법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중국은 수출 품목을 금지, 규제, 자유수출로 분류해 관리하며,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품목별 수출허가증 발급 절차, 통관 가능 횟수, 필요한 세부 요건과 서류 등을 제시해 기업들이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글로벌 오투기’ 도약… 2028년까지 해외매출 1兆 달성”

삼양식품, 3분기 해외매출 43% ↑
농심, 내수·中 부진 해외서 만회

오투기, 해외 비중 10% 못 미쳐
베트남·美 해외사업 요충지 삼아
현지 공장 설립·인지도 확대 활동

해외 사업이 식품업계의 실적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식품기업 오투기가 해외 사업에 고삐를 쥜다. 그동안 내수 중심의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국내 식품산업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 3분기 라면업계는 해외 매출 비중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라면 분야에서 오투기와 경쟁관계인 삼양식품은 ‘불닭’ 인기에 힘입어 매출 4389억원, 영업이익 87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01%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43% 늘어난 3428억원을 거두며 실적을 견인했다.

또 다른 경쟁자인 농심도 내수와 중국에서의 부진을 해외 법인 성장으로 만회했다. 3분기 매출 8504억원, 영업이익 376억원을 거뒀으며, 이는 전년 동



해피남라면가게 전경

/오투기

기 대비 각각 0.6%, 32.5%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에서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국내에서의 스낵·음료 부문과 중국 법인 부진을 상쇄할 수 있었다.

반면, 오투기는 동종업계와 비교해 해외 매출비중이 상당히 낮다. 농심과 삼양의 해외 비중은 각각 40%, 78% 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오투기는 10%에 못미친다.

오투기는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든 904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3.4% 감소한 635억원이다. 오투기 측은 “해외 부문에서의 매출과 이익은 소폭증가했지만, 국내 매출 증가가 미미했고, 판매관리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오투기는 해외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지난해 김경호 글로벌사업본부장(전 LG전자BS유럽사업담당 부사장)을 영입하고 기존 글로벌 사업부를 글로벌 사업본부로 격상했다. 오투기 내에서 제조본부, 영업본부, 품질보증본부 등 회사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조직들만 ‘본

부’로 편제돼 있는만큼 해외 사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지난 7월에는 ESG보고서에 ‘글로벌 오투기’로 도약하기 위해 2028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오투기는 베트남과 미국을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요충지로 삼고 있다. 오투기의 미국 법인인 ‘오투기 아메리카홀딩스’는 상반기 42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한 수치다. 오투기 아메리카홀딩스는 북미 현지 법인 7곳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투기 해외 전체 매출의 30% 가량을 담당하는 핵심이다. 하지만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과 판매만을 담당하고 있어 판매 확대를 급격히 이루기 힘들다.

이에 지난해 미국에 생산법인 ‘오투기 푸드 아메리카’를 설립하고 생산 기지 마련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라미라다 지역 부지를 매입했다. 현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즉시 착공할 예정이다. 현지 공장을 설립하면 국내 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와 원재료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외에도 해외 인

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사는 지난 8월 영문 표기를 기존 ‘OTTOGI’에서 새 표기인 ‘OTOKI’로 변경했다. 기존 영문 표기 철자가 다양하게 발음되는 등 발음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리뉴얼로 오투기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심플한 심볼마크로 해외 소비자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또 오투기는 라면 수출국을 전 세계 65개국에서 7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유명 식품전시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유통 점포부터 코스트코·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회사까지 현지 상황에 맞는 유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오투기는 2007년 베트남에 판매법인을 설립했으며, 2018년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오투기는 베트남에서 올 상반기에만 4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도네시아 할랄라면 시장 진입을 위해 베트남 라면공장의 할랄 인증과 전용 생산기지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

쿠팡, 충청권 로켓배송 권역 확대 박차

200억 투자해 진천군 서브허브 구축
내년 1월 운영… 400여명 신규고용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충청권 ‘로켓배송’ 권역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에 서브허브를 구축하고 400여명을 직고용한다. 쿠팡 진천 서브허브는 충청권 전역 익일 로켓배송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CLS는 20일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및 진천군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일대에 쿠팡 진천 서브허브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용준 CLS 대표, 송기섭 진천군수, 황현구 충청북도 정부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진천 서브허브는 약 2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5500평 규모로 운영되며, 400명 이상을 직고용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충청권 전



쿠팡 진천 서브허브 전경

/쿠팡

역 익일 로켓배송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서브허브가 자리잡을 초평면에 CLS가 400여명의 신규고용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쿠팡이 2030 청년들에게 인기높은 서비스인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의 정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쿠팡 금왕물류센터의 2030 청년 직원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홍용준 CLS 대표는 “쿠팡은 진천군민을 최우선 고용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진천군이 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CLS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대규모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로켓배송 확대로 군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황현구 정부특별보좌관은 “CLS의 이번 서브허브 투자는 4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물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마트·슈퍼, ‘뽕규절 어게인’ 2탄 진행

소고기 30% 할인판매 등

롯데마트·슈퍼가 고객 감사 대축제 ‘뽕규절 어게인’ 2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2주 동안 진행중인 ‘뽕규절 어게인’은 롯데쇼핑 창립 45주년 기념 할인 행사 ‘뽕규절’의 뜨거웠던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행사다.

먼저, 롯데마트는 부담없는 가격으로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겨울철 먹거리를 선보인다. 100% 앵거스 품종, 성

숙도, A등급 품질만을 엄선한 ‘CR 앵거스 소고기 척아이를/갈비살’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 30% 할인 판매한다. ‘활(活)대계’는 행사 카드 결제 시 40% 할인된 가격인 4794원에 만나볼 수 있다.

최근 상황이 좋은 부시리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부시리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가 제철이나, 사계절 맛의 변화가 적어 겨울철에도 맛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 어종이다. 이에 ‘부시리 회’를 정상 판매가 3만1000원에서 엘포인트 회원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

해 2만4800원에 판매한다. ‘내가 만드는 연어 핫강음/구이용’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30% 할인된 가격인 각 3990원, 3920원에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21일부터 24일까지 주말 특가 대표 상품으로,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한 굴을 대용량박스 상품으로 기획해 가성비 있는 가격에 판매한다. ‘대용량 박스굴’은 정상 판매가 2만9900원에서 행사 카드 결제 시 20% 할인에 수산대전 20% 할인 혜택을 더해 최종 혜택가 1만9136원에 제공된다. 롯데마트는 10월 초부터 파트너사와 협의해 지정 양식장을 기존보다 20% 늘려 행사 물량 30톤(t) 가량을 확보했다.

/최빛나 기자

“‘카누바리스타’로 간편하게 커피 한 잔”

동서식품, 최상의 커피경험 제공
기존 캡슐 대비 원두 1.7배 많아
3종 전용 캡슐… 취향 따라 선택

최근 집이나 오피스에서 간편하게 캡슐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동서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커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선보인 프리미엄 캡슐커피 브랜드 ‘카누바리스타(KANUBARISTA)’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동서식품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동서식품의 50여년 커피 제조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시된 ‘카누바리스타’는 기존 에스프레소 캡슐 대비 1.7배 많은 9.5g의 원두를 담아 풍부한 향의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누바리스타’는 로스팅 강도에 따라 라이트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다크 로스트, 디카페인, 싱글 오리진 등 총 13종의 전용 캡슐을 갖춰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지난달에는 신제품 캡슐 ‘카누 이터널 마운틴’과 ‘카누 세레니티 문 디카페인’을 출시했다. 카누 이터널 마운틴은 강하게 로스팅한 원두를 블렌딩해 진한 초콜릿의 풍미가 돋보이며, 카누 세레니티 문 디카페인에는 에티오피아, 콜롬



카누 바리스타 머신.

/동서식품

비아 원두를 블렌딩해 청사과처럼 산뜻하고 깔끔하면서도 부드러운 산미를 느낄 수 있다.

카누바리스타 머신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자인을 갖춘 ‘카누바리스타 어반’, 심플한 디자인의 ‘카누바리스타 브리즈’, 미니멀한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한 ‘카누바리스타 펄’ 등 총 3종으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머신에 적용된 특허 기술 ‘트라이앵글 탬핑’은 항상 일정한 추출을 도와 커피 향미와 퀄리티를 균일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골든 에센스’라고 불리는 18~22%의 황금 비율로 커피를 추출하며, 에스프레소와 물이 각각 별도의 노즐에서 추출되는 ‘듀얼 노즐 바이패스’ 기술로 한층 깔끔한 맛의 아메리카노를 선사한다.

/신원선 기자

오리온, 닥터유몰 전 제품 최대 50% 할인

‘닥터유몰 블프워크’ 행사 진행

오리온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닥터유몰 블프워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닥터유몰 회원은 오는 12월 3일까지

닥터유몰에서 전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제주용암수, 면역수를 포함해 단백질바, 에너지바 및 단백질 함량을 강화한 닥터유PRO 단백질바, 드링크, 파우더 등이다.

/신원선 기자

운동인구 증가세… 활동성에 스타일은 덤, ‘숏패딩’ 뜬다

**유통업계, 겨울 한파·트렌드 잡기
무신사, 다양한 디자인 90여 종 선보여
리복, 양면 활용가능 리버시블 강화
세르지오 타키니, 다용도 제품 공개**

배꼽티에 이어 패딩도 짧아지고 있다. 운동 활동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올해 겨울 활동성을 고려한 숏패딩이 더욱 유행을 탔다는 분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롱패딩이 유행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패션업계들이 활동성을 고려한 숏패딩을 선보이고 있다.

스타일을 중시하는 2030 추세에 더해 올해는 운동 인구 증가 추세가 숏패딩 추세의 배경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이 등산, 걷기, 요가 등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지를 지표로 환산한 신체활동실천율은 지난 2006년 28.3%에서 2024년 48.4%까지 증가했다.

패션 업계 관계자 역시 “일부 롱패딩을 찾는 수요가 남아 있긴 하지만,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 모델 최혜선의 겨울 패딩 화보 스틸컷. /에프앤에프

숏패딩 유행으로 업계들은 다 숏패딩을 출시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롱패딩은 다리까지 길이가 내려오는 만큼 활동성이 떨어져 운동하는 소비층의 수요와는 맞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무신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 ‘데일리 푸퍼’ 패딩 제품군을 강화했다. 푸퍼는 두툼한 볼륨감에 짧은 기장이 특징인 패딩의 한 종류를 뜻한다.

작년에 비해 제품 수를 늘리고 스타일, 색상을 더욱 다양화해 출시했다는 게 무신사 스탠다드 측 설명이다. 실제 올해 무신사는 ‘데일리 푸퍼’ 상품 수를 전년과 비교해 3.5배 늘리고 총 90여종에 달하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생활문화기업 LF의 ‘리복’은 크롭 패딩으로 유행했던 ‘이효리 패딩’을 작년 이후 올해도 선보인다.

두 가지 스타일로 모두 활용이 가능한 ‘백터 리버시블 다운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북고풍의 디자인과 기본적인 패딩 디자인, 두 가지로 표현해 입을 수 있는 ‘리버시블 제품’으로 패딩 양면으로 다른 소재를 적용해 하나의 제품군으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LF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리복은 패딩 제품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우븐 카고 팬츠’와 나일론 소재를 활용한 ‘파라슈트 패딩 치

마’ 제품을 함께 제안한다.

에프앤에프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 역시 ‘W 에어쿠쉬 숏 다운 점퍼’와 ‘데일리 크롭 다운 점퍼’를 새롭게 선보였다. 에프앤에프에 따르면 두 제품 모두 일상 및 야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짧은 기장에 가벼운 무게감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세르지오 타키니 관계자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강추위에 대비하면서도 트렌드와 보온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숏패딩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이 모 씨는 “롱패딩은 그냥 전투복처럼 하나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며 “숏패딩에 비해 롱패딩을 굳이 여러 개 사서 구비해 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패딩 가격에 대해 “옛날에는 숏패딩이 롱패딩보다 좀 더 저렴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길이보다는 소재,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LF ‘아떼 바네사브루노’ 남성용 가르송 라인 선보

생활문화기업 LF의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아떼 바네사브루노’가 남성 소비자를 위한 ‘아떼 가르송’ 제품군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LF에 따르면 여성스러운 디자인에 주력해 온 아떼 바네사브루노가 이번 ‘아떼 가르송’ 제품군 출시를 통해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남성도 즐길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가르송’은 소년을 뜻하는 불어다.

대표적으로, ‘후드 머플러’와 ‘스마트 카드 홀더’ 제품이 준비됐다.

‘후드 머플러’는 후드와 머플러가 결합된 형태로, 울 100% 소재가 사용됐다. 한쪽 면에는 말차 색상의 체크 패턴을, 다른 면에는 검정색 단색 디자인을 적용해 양면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LF 측 설명이다.

‘스마트 카드 홀더’는 스마트폰에 부착 가능한 고급 가죽 소재 제품으로, 검정과 베이지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작은 크기에 아떼 가르송의 로고가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군은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와 더현대 서울 아떼 바네사브루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빅딜’ 또 터졌다… 올해 누적 수주액 ‘5조’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제약사와 9304억 CMO 체결
올해만 1조 규모 ‘빅딜’ 3건 성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기록과 함께 올해 누적 수주액 5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총 9304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총 2건으로, 각각 7524억원 규모, 1780억원 규모인데 해당 수주 금액을 합하면 지난 2023년 전체 수주 금액인 3조5000억원의 약 30%에 달한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4600억원 규모의 계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약을, 지난 10월에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7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만 1조원 규모의 ‘빅딜’을 총 세 건 올렸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올해 첫 계약을 시작으로 현

재까지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시 기준 총 11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해 11개월 만에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수주 성과를 냈다. 이는 2023년 전체 수주 금액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전역에서 초대형 계약을 잇달아 체결해 대규모 수주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고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을 증명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5공장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L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피지오겔이 연말 한정판 기획과 포장으로 특별한 고객경험을 선사한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피지오겔 연말맞이 기획세트 출시

LG생활건강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피지오겔에서 ‘2024 연말 맞이 기획 세트’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 한정판 주제는 ‘사랑이 넘치는 피지오겔 빌리지’로 177년 전통의 독일 스티펠 약국에서 영감을 받은 따뜻한 조명 아래 밝게 빛나는 상점과 눈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피지오겔 신제품인 ‘DMT 리제너러티브 크림 트리플 세트’와 ‘데일리문앰플 세트’, ‘DMT 립밤 더블세트’ 등 총 3종류로 선보여지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DMT 리제너러티브 크림 세트와 데일리문 앰플 세트에는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담아 트리 염서와 트리를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수작업 스티커 세트를 함께 제공한다.

LG생활건강은 이번 기획세트 출시를 기념해 특별한 행사도 마련했다. 주요 온라인 몰에서 피지오겔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포장용 선물 박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JW중외제약, 현대인 공감 ‘영양제 3종’

JW중외제약은 인기 인스타그램 작가 ‘아찔’과 협업한 영양제 패키지 3종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직장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재치 있는 문구로 꾸며졌다.

‘견뎌! 그래도 가야지 어떡해’는 ▲간 건강엔 밀크씨슬&비타민B ▲눈 건강엔 루테인 MAX 등 건강기능식품 2종으로 완성됐다. 각각 밀크씨슬 추출물과 비타민B군 4종, 마리골드꽃 추출물과 루테인 20mg을 함유해 지친 간과 눈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JW중외제약 측의 설명이다.

‘이겨!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는 먼



아찔 작가와 협업한 영양제 3종.

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구성으로 ▲피로 개선엔 홍삼정 골드 ▲혈행 건강엔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등을 포함한다. ‘즐거! 그래도 가야지 어떡해’ 패키지는 ▲에너지 부스터엔 아르기닌 ▲장 건강과 면역엔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등을 담았다. /이청하 기자

지그재그, 수험생 신규 가입자 수 30% 급증

카카오스타일의 E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신규 가입자 수가 직전 주 대비 30%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스타일에 따르면 수능이 치러진 다음 날인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고등학교 3학년인 2006년 생 신규 가입자 수가 직전 주와 비교해 30%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하면 31% 증가한 수치로, 매년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신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카카오스타일 측 설명이다.

일 평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고3

고객들은 사흘간 하루 평균 14회 이상 지그재그 앱을 실행했다. 같은 기간 구매 상품 수와 거래액 역시 수능 직전 주와 비교해 각각 10%, 13% 증가했다. 주요 검색 키워드는 ‘니트’, ‘무스탕’, ‘패딩’ 등이다.

제품군 별로는 쇼핑물, 뷰티, 패션 브랜드, 라이프 제품군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직전 주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제품군은 라이프로, 구매 상품 수와 거래액이 각각 86%, 116% 크게 늘었다. 쇼핑물 카테고리 역시 구매 상품 수와 거래액이 전주 대비 각각 12%, 10% 증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IBK기업은행, 미즈호은행과 국내외 협력 확대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미즈호은행과 국내외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금부문 협력 ▲국외점포 성장 지원 ▲혁신 창업기업 육성 ▲IB(Investment Banking) 사업 공조 ▲기업지원 연구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키로 뜻을 모았다. /IBK기업은행



풀무원 '제15회 식품품질안전 컨퍼런스' 성료

풀무원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캠퍼인재개발원 인재관에서 풀무원 자사공장 및 협력기업 품질관리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식품품질안전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풀무원기술원은 협력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활용해 변화하는 식품안전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풀무원



에어부산-클럽디 오아시스,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에어부산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스파&워터파크 클럽디 오아시스와 손잡고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에어부산은 지난 19일 오후 에어부산 사옥에서 ㈜이도가 운영하는 클럽디 오아시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에어부산은 클럽디 오아시스는 에어부산 임직원 및 탑승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에어부산



효성중공업, 수력 발전기 국산화 공로 인정 받아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효성중공업은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메가와트)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효성중공업



교보증권, 결식아동에 '드림이 따뜻한 밥상' 지원

교보증권이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창립 75주년을 맞이해 '드림이 따뜻한 밥상'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드림이 따뜻한 밥상'은 2012년부터 국제구호NGO 기아대책과 함께 결식아동들에게 식량키트를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교보증권

‘85세 기부왕’ 유휘성 씨, 모교 고려대에 10억 기부

경영대학 인성기금 기부식
2011년부터 누적 94억 기부
장학·연구·연구상 등 활용

유휘성(상학58, 86세) 씨가 또다시 10억을 들고 모교 고려대를 방문했다. 그가 지난 13년간 고려대에 전달한 기부금은 총 94억원에 달한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19일 본관 총장실에서 '경영대학 인성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대학 인성기금은 경영대학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유휘성 씨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함에 들어있는 '仁'자와 기부자 성함의 '星'자를 따 '인성(仁星)'이라 명명했다. 유휘성 씨가 그간 전달한 기부금은 인성장학기금, 인성연구기금, 인성연구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휘성 기부자(왼쪽)와 김동원 고려대 총장(오른쪽)이 기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2011년 모교인 고려대에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원을 기부한 유휘성 씨는 2015년에도 고려대를 찾아 10억원 수표를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2017년에는 자녀들을 키운 추억이 어린 서초구의 155m² (약 50평, 당시 매매가 24억) 아파트를 기증,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0억원씩 기부했다. 이어 2022년 새해와 작년 5월 10억을 추가 기부하며 '85세 기부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기부식에서 유휘성 씨는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려대에 주고 싶다는 말을 해 왔고 이러

한 기부 철학을 계속해서 지킬 생각"이라며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고려대에 교우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경영대학 교원들이 연구를 통해 제자들에게 배움을 주고, 제자들은 열심히 공부해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지난 13년간 모교에 끝없는 사랑을 보내 주신 유휘성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이 잊지 않고 모교를 챙겨주셔서 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다"라며 "패적해 주신 경영대학 인성기금은 경영대학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배들이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SKT, 저궤도위성 활용 재난통신기술로 '장관상' 수상

전파방송기술대상서 과기부 장관상
지상 인프라 손상에도 통신 제공

SK텔레콤은저궤도위성(LEO)과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재난 통신 기술 개발 공로로 제25회 전파방송기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파방송기술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 통신 방송 분야 산업체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상하는 상이다. SK텔레콤은 2022년 AI(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서비스 '플러스바', 2023년 AI 기반 위치분석 플랫폼 '리트머스(LITMUS)' 상용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3년 연속 장관상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수상한 SK텔레콤의 재난 통신 기술은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지상 인프라가 손상됐을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과 초소형기지국을 활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통신 및 측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량형과 배낭형으로 구성된 솔루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맞춘 긴급 통신 이용이 가능하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도 연동되어 정부의 구조 작업 및 필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저궤도 위성 백홀(backhaul)의 용량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 위성 안테나 결합 기술, AI 기반 위성 시뮬레이터, 위성

정밀 측위 기술 등 다양한 선행기술을 개발하고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위성 통신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6G 시대에 대비해 지상 이동통신망과 위성통신을 결합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R&D 측면에서도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내년 초 예상되는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국내 출시에 맞춰 SK텔레콤과 기술·사업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장은 "SK텔레콤의 기술력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난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오른쪽)이 전파방송기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SKT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기아, 실시간 교통상황 제공

도로공사와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앞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은 운전 중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전방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20일 한국도로공사과 '공공-민간 협력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교통 데이터를 공유해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도로공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사고 발생, 전방 속

도, 갓길 차로, 하이패스 개폐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현대차·기아 고객은 향후 차량 인포테인먼트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사고 추정구간, 정지차·역주행 발생구간 등 차량이 주행하며 수집한 정보를 도로공사에 제공한다.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는 "앞으로도 주행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정만성 △채권운용부문장(상무) 임동영 △패시브 운용부문장(이사대우) 최준영

◆대신증권 △서울WM부문장 남상구 △고객솔루션부문장 이선영

부음

▲박영준씨 별세, 박창성 (NH투자증권 실물자산투자본부 대표)씨 부친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30분. 02-3410-3151



이용국 목사와 박창욱 사모가 지난 11일 모교인 한신대에 1000만원을 기부한 뒤 강성영 총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한신대, 이용국 목사 장학금 전달식

7년간 매년 1000만원씩 기부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지난 11일 경기캠퍼스 장곡관 총장실에서 이용국 목사(신학과 65학번)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용국 목사와 박창욱 사모는 모교인 한신대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일곱 번째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용국 목사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공신력을 잃어가고, 교인수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교단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마음을 전했다.

강성영 총장은 "매년 학교를 찾아와 주시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는 아름다운 결에 감사하다. 기도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주신 덕분에 신학생 전액 장학금 운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신학교육에 장학금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좋은 목회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노벨상 받은 AI 알파폴드와 푸드테크



연 윤 열 의
푸드톡톡

2016년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는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했다. 그로부터 채 10년도 지나지 않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지능망을 연구한 과학자들에게 주어졌다.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튼 교수는 초기 매개변수 값을 정하고,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줄이는 경사하강법을 제안했다. 경사하강법은 산에서 쉽게 내려가는 길을 찾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다.

코로나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널리 사용된 PCR 검사는 감염병 진단,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다. 알파폴드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진보하여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기반으로 3차원 구조를 예측하며, 이는 단백질의 생물학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알파폴드는 2018년과 2020년에 열린 구조 예측 대회(CASP)에서 높은 정확도로 단백

질 구조를 예측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알파폴드의 최신 버전인 알파폴드3는 단백질과 DNA, RNA, 다양한 리간드 및 이온으로 구성된 복합체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식약동원(食藥同源)의 원리는 점차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푸드테크에서 그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알파폴드나 로제타폴드와 같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푸드테크 기술은 특수의료용 도식품의 시장을 가속화 하게 될 것이다.

맞춤형 특수의료용도식품은 개인의 유전적 정보와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특정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단을 설계할 수 있게 되고, 알파폴드 인공지능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배양육에서 중요한 단백질의 3D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육질과 풍미를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라겐 같은 단백질의 구조를 활용하여 고령자나 환자에게 필요한 부드러운 씹기 좋은 식감을 구현할 수 있고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건강 상태에 맞춘

영양소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알파폴드를 통해 개인 맞춤형 메디푸드와 신약을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식품공학 기술과 분자생물학적 이론을 통합하여 배양육의 핵심 기술인 세포의 조직구조와 기능을 더욱 잘 재현함으로써 배양육의 맛과 향 등 감각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지지체(스캐폴드)를 개발하여, 세포가 자연스러운 조직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배양육의 식감과 질감을 개선하게 된다. 또한 효소와 성장 인자가 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배양육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최적화하는 방법과 특정 단백질의 조성비율 조절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인공지능 알파폴드는 단백질의 구조 예측, 스캐폴드 설계, 감각적 특성 향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린바이오산업에 활용될 것이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2015년 UN에 의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실천 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SG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디딤펀드, 부진 딛고 은퇴시장 ‘디딤돌’ 될까?



기지 수점
원 관 희
(자본시장부)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인 ‘디딤펀드’가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의 주도 아래 ‘은퇴 준비를 위한 탄탄한 디딤돌’이라는 목표로 야심차게 등장한 디딤펀드는 주식과 채권, 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밸런스펀드(BF)형 펀드다. TDF처럼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배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투자 기간 내내 위험자산 비중을 50% 이내로 꾸준히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과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자산배분을 조정,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25개 자산운용사가 업계 공통 브랜드로 지난 9월 말 출시했다. 이 중 10개 운용사는 기존 펀드를 리뉴얼했고, 15개 운용사는 신규 상품을 내놓았다. 운용사들은 각자 릴레이 기자회견담회를 열며 상품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디딤펀드의 첫 성적표는 부진했다.

10월 한 달간 25개 디딤펀드의 신규 운용설정액은 285억원에 불과했다. 흥국자산운용이 계열사에서 확보한 초기 설정자금 200억원을 제외하면 순 유입액은 약 85억원에 그친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경쟁상품인 TDF(Target Date Fund) 173개의 설정액은 3901억원 증가했다.

TDF와는 달리 디딤펀드의 부진 요인으로 먼저, 디딤펀드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점이 크다. 디폴트옵션 가입에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디딤펀드는 아직

승인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판매 채널이 증권사로 한정된 점이다. 그렇다 보니 은행 등이 취급할 수 없는 점도 디딤펀드의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금상품은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디딤펀드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투자 가치 상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 실물 이전 등 제도 변화가 연금상품 수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디딤펀드는 앞으로 더 치열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출시 초기의 실망스러운 성적을 딛고 디딤펀드가 더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은퇴 준비를 위한 디딤돌’이라는 본래 목표에 맞게, 디딤펀드가 장기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계에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1일 (음 10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48년생 아둔한 나를 닮았고 상대를 배려하도록. 60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운 하루. 72년생 어디를 가도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84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준다.



37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조심. 4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놓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전진. 61년생 인맥을 이용하려 난국을 타개. 73년생 이성을 만날 때도 망설임이 행운을 차는 결과. 85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38년생 같은 땅 같은 씨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50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지 않으니 차분히 기다리자. 62년생 기대가 커지면 투자가 그만큼. 74년생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하루. 86년생 본배에서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39년생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날. 51년생 겉보기에는 멀쩡하나 속이 상한다. 63년생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어서 다행. 75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야 실수가 없다고 했다. 87년생 만나는 즐거움을 좋아하다 망신을 당할 수.



40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52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64년생 자녀에게는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 76년생 사색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88년생 돈 문제로 가지 많은 나무에 비람 잘 날이 없다.



41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탓이다. 53년생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나 의외의 복병이 있으니 주의. 65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 77년생 과식으로 위장계통의 질환이 의심되면 병원을. 89년생 좋은 결과를 위해서 포장도 잘해야 할 때가 있다.



42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54년생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긴다. 66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자. 78년생 문서는 기다리던 것일수록 실패라. 90년생 산행에서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43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온다. 55년생 진로수정은 신중하게 해야. 67년생 운이 열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79년생 창업을 하려면 먼저 경험자를 찾아 상담해볼 것. 91년생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44년생 정상으로 오르는 것은 순식간. 56년생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다. 68년생 환경이 밝아지고 남쪽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다. 80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이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92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일이 잘 풀린다.



45년생 외출 시 이륜차를 조심. 57년생 가정사에 참견하다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입방아에 오를 수. 69년생 이기적인 마음도 기쁨은 필요. 81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오늘은 최선. 93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른다.



46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격. 58년생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응원하라. 70년생 먹을 복이 있으나 반드시 소화제를 복용. 82년생 남가일몽(南柯一夢)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야 최선. 94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라.



47년생 독존적인 사고로 사람을 잃을 수 있다. 59년생 장래를 위해 적금을 드는 것이 좋겠다. 71년생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83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움직여보자. 95년생 말만 앞세우고 고집과 두서없는 행동에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김상회의四季

장수의 조건



수명과 관련해서는 기후의 영향이 크다. 열대나 동남아처럼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의 기간이 대부분인 곳은 온도에 대한 신체 적응력이 약하다. 우리나라처럼 사계가 있게 되면 한겨울을 영하 10도나 20도가 넘는 경우도 추위에 대한 내공이 있다. 인도나 동남아같이 몹시 더운 나라의 사람들은 영하도 아닌 영상 5도쯤으로만 기온이 떨어져도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쓰러지거나 죽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더운 열기로 상정될 수 있는 화(火) 기운에 대한 상대적 적응력이 약화한 것이다. 그래서 중위도권 나라들 인구의 평균 수명보다 더운 지역 국가들의 인구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의 주원인이 된다. 북극이나 고산 지대 겨울이 긴 러시아 같은 나라도 평균 수명이 중위권 국가들에 비해 낮다고 한다. 히말라야와 같은 고산 지대의 주민들은 목초가 나는 지역이 적어 산양 같은 고기 육류를 주로 하고 기후가 춥다 보니 질이 좋지 않은 지방류를 많이 섭취한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무기질 흡수가 적어 질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북유럽 삼국은 추운 날씨에 술과 같은 알코올 의존도가 높고 흡연율도 높아 고혈압 같은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 역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낮은 편이란다. 게다가 위도가 높아 백야로 인하여 깊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기간도 길어 성격도 우울해지고 웃음도 적단다. 중위권 위도의 대표적 낙천적 나라들인 헝가리 좋고 풍광 좋은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곳의 국민은 유쾌하며 웃음이 넘쳐서인지 전통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에 좋은 해산물과 채소와 함께 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모두 부족함 없는 햇살의 산물 아니던가? 좋은 기후 훌륭한 먹거리 밝은 햇살은 몸과 마음의 명약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1	2017년3월09일 제166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의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0

153문제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중·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6	2	7	2	1	8	9	9
2	9	8	6	8	9	7	2	1
7	9	1	8	2	9	2	6	8
6	8	2	1	7	2	8	9	9
2	8	9	9	6	2	1	8	7
9	1	7	6	8	9	8	2	6
1	2	6	2	9	8	9	7	8
9	7	8	2	8	6	9	1	2
8	2	9	9	1	7	6	8	2

9	6	8	9	2	2	8	7	1
2	2	9	8	7	1	8	6	9
8	7	1	9	6	8	9	2	2
9	1	2	6	8	7	1	8	2
8	1	2	8	9	6	9	7	7
7	8	6	2	1	9	9	2	8
2	8	8	1	2	6	7	9	9
6	9	7	8	9	2	2	1	8
1	2	9	7	9	8	2	8	6

“피부에 닿는 ‘비건 매트리스’… 안전한 수면이 하루 바꾸죠”

人터뷰

양 미 영

N32 스튜디오 논현점 점장

시몬스 독자적 브랜드 ‘N32’ 선택
아이슬란드 씨셀 사용, 피부 자극↓
친환경 인증, 난연 성능까지 갖춰

“매트리스에 왜 비건(Vegan)이 필요하냐구요? 매일 피부에 닿잖아요. 실제로 이때문에 매장을 찾는 손님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서울의 대표적인 가구거리인 논현동. 지난 9월 이곳에 N32의 첫 로드숍 매장이 ‘N32 스튜디오 논현점’이 문을 열었다.

논현점을 총괄하고 있는 양미영 점장은 2016년 시몬스의 슬립마스터로 입사하며 시몬스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시몬스 갤러리 논현점을 거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근무했다. 그러다 시몬스가 선보인 N32로 브랜드를 옮겨타 N32



양미영 N32 스튜디오 논현점 점장이 매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몬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있다 현재 N32 스튜디오 논현점을 맡고 있다.

양 점장은 20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비건 매트리스’라는 것을 알고 오신 고객들은 단순히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엄청난 브랜드’라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상담 중 비건 소재를 언급하면 처음엔 생소하게 생각하시다가 반응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말했다.

N32의 ‘N’은 New의 약자다. 32는

하루 8시간의 수면이 24시간을 바꾼다는 의미로, 8에 24를 더한 숫자를 제품명에 담았다.

“매트리스는 매일 쉬는 공간으로 우리 일상과 직결돼 있죠. 요즘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매트리스라는 것을 알고 먼저 ‘찜’하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모님들에서 신생아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합니다.”

실제로 N32매트리스는 아이슬란드

청정지역의 유기농 해조류와 식유섬유인 셀룰로오스를 함유한 아이슬란드 씨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탁월한 통기성으로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양 점장은 “N32 폼 매트리스는 기존 시중 폼 매트리스의 고질적인 단점인 ‘덥다’, ‘푹 꺼진다’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비건 인증 뿐만 아니라 라돈·토론 안전제품인증, 친환경 인증, 난연 성능까지 갖췄으니 금상첨화죠”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N32 폼 매트리스는 통기성, 탄성, 안전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보니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제품을 찾으시려면 결국 저희 브랜드 매장으로 오셔야 할거예요”라며 활짝 웃었다.

N32는 전용 침대인 모션 베드도 선보이고 있다. 산후조리나 병실에서나 사용했던 특수침대가 아닌 일상의 침대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다.

N32는 시몬스가 선보인 독자적인 브랜드다. 하지만 시몬스와 연결되는 사

람은 많지 않다. 양 점장에 따르면 매장을 찾는 고객들도 “시몬스예요?”라고 되묻는 경우도 많다.

N32는 시몬스 안정호 대표가 ‘기업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에 두고 야심차게 선보인 브랜드다. 하지만 브랜드 문화, 비주얼, 컨셉 등 전반적인 전개 방식에선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면서 시몬스와 독립적인 ‘멀티 브랜드’의 길을 걷고 있다.

‘N32 SLEEP SAFETY 캠페인’도 장안의 화제다. 특히 1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은 누적 조회수만 700만을 훌쩍 넘었다.

“이곳 논현동 매장 안에서도 캠페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광고가 너무 밝은 음악을 사용하거나 연예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N32는 환경오염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인간의 부주의함을 꼬집는 등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오히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와 ‘원원’… 동반성장 우수 15건 발굴

중기부, ‘원원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
LG전자, 한국서부발전, 콘진원 등
기술협력, 데이터·기술개발 등 협업

LG전자, 한국서부발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협력사와 펼친 협력이 동반성장 우수 사례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 우수 활동 15건에 대해 ‘24년도 제2차 원원 아너스’로 선정하고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념패 수여식을 가졌다.

여기에는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5건) ▲맞춤형 지원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5건) ▲데이터 및 기술 개발·공유로 동반성장 달성(2건) ▲수출 지원과 협력으로 해외 경

쟁력 강화(3건)가 포함됐다.

‘원원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진행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 기업 등과 윈윈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다.

‘원원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과 기관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기념패 수여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LG전자와 세미솔루션은 각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서로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LG전자는 세미솔루션에 투명 디스플레이용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비용과 함께 기술 컨설팅을 지원했다. 세

미솔루션은 관련 특허 및 지적 재산권 확보와 직원 추가 고용을 통해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서부발전과 로아스는 데이터 개방과 기술 공유로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이뤄냈다. 서부발전은 로아스에 발전소 데이터를 개방·제공했다. 로아스는 발전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기술인 로봇을 이용한 AI 음향기반 산업설비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콘텐츠진흥원과 누보, 스튜디오S의 경우 협력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과 상호 협력으로 해외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누보는 수출 및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스튜디오S는 간접비 광고 및 라이선싱 지원으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김승호 기자

교원 웰스 “쓰던 제품 반납하면 렌탈료 면제”

26일까지 중고보상 프로모션

교원 웰스(Wells)가 환경가전 신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보상 프로모션을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

20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교원 웰스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을 신규 렌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렌탈 시 브랜드에 관계 없이 기존 사용하던 노후 제품을 반납하면 품목과 렌탈 조건에 따라 최대 6개월 렌탈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보상 혜택은 월 렌탈료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중고보상을 통해 ‘아이스원 얼음정수



교원 웰스 중고보상 프로모션 모델. /교원웰스

기’를 새로 렌탈하면 6개월 렌탈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년 약정 기준으로 약 40만원의 렌탈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웰스 정수기 슈퍼클링 더뉴’ ‘웰스 비데 자동살균’ ‘에어가든 공기청정기’는 약정 조건에 따라 최대 4개월 렌탈료가 면제된다.

/김승호 기자

유진그룹, 회사 이끌 승진 후보자 역량 검증

핵심 가치, 비전 등 ‘역량표준검정’ 시행

유진그룹이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진그룹 역량 표준(ECS) 검정’을 시행했다.

20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유진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유진그룹 역량 표준(ECS; Eugene Competency Standards) 검정’은 2021년에 처음 도입한 유진그룹 승진 후보자 역량 향

상 프로그램이다. 부장·차장·과장급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룹의 핵심 가치 이해와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평가한다.

올해 검정에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유진헬센터, 유진한일합섬, 유진로지스틱스, 유진아이티서비스 등 유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승진 후보자들이 참석했다.

검정내용은 ▲유진그룹의 경영철

학과 핵심가치 ▲사업 비전과 브랜드 전략 ▲ESG와 윤리경영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등을 주제로 치러졌다. 특히, 전자재·유통, 금융, 미디어·콘텐츠, 물류·레저·IT 등 그룹의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와 함께 AI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DX)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역량 검증도 이뤄졌다.

유진그룹은 향후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기술력·디자인 업그레이드

현대리바트가 차별화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담은 가죽 소파 ‘더 마제스’를 출시했다.

20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더 마제스는 2016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이 7만 개에 달하는 베스트셀러 소파인 ‘그란 디오소’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트렌디한 디자인과 고급 천연가죽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더 마제스에 적용한 가죽은 두께 1.4~1.6mm의 이탈리아산 최고급 천연가죽으로, 60년 전통의 가죽공장(테너리)



현대리바트 ‘더 마제스’. /현대리바트

‘콘체리아 프리양테에서 생산했다.

더 마제스는 리클라이너형과 일반형 두 가지 타입이며, 리클라이너형은 헤드와 발판이 각각 움직이는 ‘2모터 리클라이닝’ 시스템을 적용해 사용자별 자세에 맞춰 편안함을 극대화했다.

/김승호 기자

비즈니스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IMF, 韓 성장률 2.5→2.2% 낮춰… “트럼프 리스크 불확실성 커”
▲우크라 한국대사관 “체류 한국인 신변안전 각별히 유의” /사진 뉴시스

▲“키이우美 대사관 폐쇄 러 공습 대피 준비 지시”
▲EU·나토 수장, 우크라 1000일 기념… “계속 지원 확신해돼”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조…미·러 핫라인도 끊겨
▲미군 시리아 공습에 국내 무장세력 5명 피살- 시리아인권관측소 /사진 뉴시스



‘글로벌 오투기’ 도약
2028년까지
해외매출 1兆 달성
L1



Life

활동성에
스타일은 덤
숏패딩 뜬다
L2



연세대 논술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법원 “채무자 패소 부분 정당해”
자연계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지
학교, 2심 항고할 듯… 장기화 예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5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
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는
‘재시험 이행’ 본안소송 전까지 시험 후
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무자(학교법인 연세대
대표자인 허동수 이사장)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소송을 낸 수험생 18
명)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루
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
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라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은 정
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한다”고 밝
혔다. 연세대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2024.10.12.(토)은 수시모집 논술 시험일입니다.
시험당일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금지 합니다.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후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를 살펴봐도 효력정지를 하는 것이 정
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 도중 수학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
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고사를 치렀
던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논
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5일 해당 신청을 인용
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
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
됐다.

이에 연세대는 곧바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
측의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연세대 측
은 심문에서 “합격권에 있던 다른 수험
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
며 가처분 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
지 않은 만큼 2심에 항고할 것으로 보
여, 대학과 수험생들 간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 당시 법원에 “항고심 결정 이
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라며 “12월
13일(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요
청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오세훈 “특장점 살린 회전문 인사도 필요”

野 시의원, 측근 인사 돌려쓰기 지적
세입 증대 위해 재산세 60% 조정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 인사 돌려
쓰기’를 자제하라는 야당 서울시의원
의 지적에 “회전문 인사도 필요하다”고
맞받아치며 신경전을 펼쳤다.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
님의 인사 돌려쓰기가 너무 심한데 주
의하라”고 질책했다.

오 시장은 “어휴, 그게 무슨…”이라
며 “주의하라는 말이 적절치 않은 것은
저는 회전문 인사도 필요할 때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분을 한번 써 보면 어
디에 특장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
고 그런 것을 극대화해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고 맞받아쳤다.

최근 1년간 오 시장의 인사 임명으로
인해 박정숙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
GO) 사무총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로, 강명 서울시 정무수석은 서울
시50플러스재단 대표로, 박형수 서울
연구원장은 서울시 정책특보로, 신선
중 서울시 미디어콘텐츠 수석은 시 대
변인으로 보직 이동을 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자치구 세입 증대를 위
해 재산세 특별시세분을 현행 50%에
서 60%로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언뜻 보면 50%를 60%로
올리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도움될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며 “심도 있
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북권이
나 서남권 자치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
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파주시, 민생회복 위해 사상 최대 예산 편성

2025년 2조1527억 편성… 7.3%↑
약자보호, 민생활력, 자족도시 집중

파주시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파주시는 20일 2
조 1527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예
산 증가율(3.2%)을 크게 상회하는 수
준이다.

예산편성의기본방향은 ▲확대재정
으로 민생 회복과 미래 대비 ▲3대 핵
심 분야에 1조 원 이상 투자 ▲다양한
시민 생활 밀착 예산 반영 등에 초점을
두고, 김경일 시장은 “확대재정은 필
수”를 강조했다.

파주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최
우선 과제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
소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 민생
현안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고 설명
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 대비 97억 원
증가한 5,058억 원으로 추계됐다. 국·
도비 보조금(7,475억 원)과 교부세·교
부금(4,000억 원) 등 이전재원을 적극
확보하며, 재정자주도는 다소 하락
(51.9%→51.1%)했으나 대규모 투자사
업의 가용재원을 확대했다.

파주시는 약자 보호, 민생 활력, 자
족도시 조성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1
조 1,364억 원을 집중 투입해 지역경
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나
선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호서대 LINC3.0사업단, 지산학 협력 강화

푸드테크 관련 IC-PBL 모델 구축
농업기술원과 식품개발 역량 강화
대학-고등학교 연계 교육모델 개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
E)로의 전환을 앞둔 대학 LINC3.0
사업단이 지산학(地産學·지자체-산
업-대학) 협력 활동을 크게 강화하
고 있다. 특히, 호서대학교(총장 강
일구) LINC3.0사업단은 식품공학
과, 교내 부서와 협력해 푸드테크(식
품개발분야)관련 ‘기업 연계 문제기
반학습(IC-PBL)모델’을 구축해 학
산에 이바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20일 호서대에 따르면, 기업연계
문제기반학습 교육 모델은 올해 초
사업단 참여 학과인 식품공학과와
제안으로 시작됐다. 교내 교육혁신
처와 논의를 거쳐 최종 3개의 연계성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우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협
업해 충청남도 내 기초 지자체 농촌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리빙랩을 이용한 식품개발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2차에 걸쳐 진
행했다.

참가자들은 소비 성향 분석과 시
제품 개발 과정 견학 등을 통해 농업
인 생산 제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는 역량도 강화했다.

이어 충청남도 내 고등학교 식품·
과학 동아리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연
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푸드테크
(식품개발) 지도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8월에는 충청남도농업기술
원, 충청남도교육청, ㈜종가, ㈜풀무
원과 교내 부서, 학과와 연계·협업해
‘푸드테크 사업(식품개발) 계획 아이
디어’를 주제로 전국 고등학생·대학
생 대상 공모전 및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공모전에서는 참가팀이 K-FOO
D 아이디어와 시제품을 출품해 경쟁
했다. 그 결과 고등부와 대학부에 각

각 ▲충청남도교육감상 ▲글로벌 중
가혁신상 ▲풀무원기술원장상 등을
수여했다.

전체 IC-PBL 교육 행사 및 프로
그램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한 채희
정 호서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LIN
C3.0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
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한 비교과 교
육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과 지자체
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라
며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협력해 I
C-PBL 모델을 확산하는데 큰 도움
이 됐다. 앞으로도 이같은 협력 모델
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고 밝혔다.

김장우 호서대 LINC3.0사업단장
도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구
축된 지산학 협력 IC-PBL 교육 모
델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도 지
역 주력산업 학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8 | 해질 / 17:17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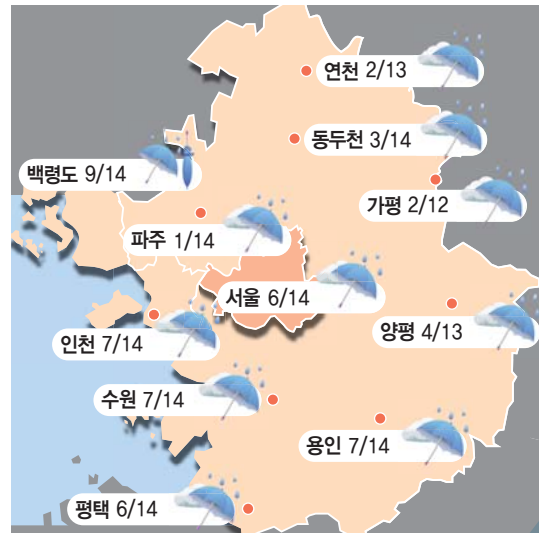
21일 (木)

음력 : 10월 21일

수도권 날씨

6 ~ 1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코트 떠나는 ‘훈신’ 라파엘 나달 고별전
▲FA 3티어 김하성 “다년 계약 가능”
/사진 뉴시스

▲‘조현우·양민혁·안데르손’ K리그1
시즌 MV전
▲4명 중 3명이 ‘상무 입대’…FA 보상
선수로 미래에 투자한 구단들



▲‘메시 도움’ 아르헨티나, 페루 꺾고 월드컵
남미 예선 선두
▲NBA 클리블랜드, 개막 15연승 마감
…보스턴에 패배
/사진 뉴시스

Q LG의 클린테크에 바라는 게 있나요?

담고 싶은 이 아름다움 다음 세대에도 닿기를

자연을 담는 사진작가 이학님은 맑고 깨끗한 숲을 꿈꿉니다.
LG는 신재생 에너지 기반 탄소 저감 기술, 폐플라스틱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바이오 소재 플라스틱 등 클린테크로
아름다운 내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갑니다.

자연을 담는
사진작가
이학님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화담숲을 촬영한 사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LG의 클린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g.co.kr의 2022-2023 ESG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